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22일 금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50호

한일투자협정 체결은 매국행위

고이즈미방한반대 투쟁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부시방한 반대를 외쳤던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달여 만에 다시 모였다.

21일 오후 1시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전국민중연대, 전쟁반대평화실천, 투자협정 · WTO반대국민행동 주최로 ≪한일투자협정 체결 반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반대, 역사왜곡 규탄 고이즈미 방한 규탄대회≫가 열렸다.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과 학생, 철거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이 한일투자협정 체결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용인,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인사말을 통해 민주노총 허영구 직무대행은 ≪지금 우리의 한일관계는 일제식민지 시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반세기동안 일본의 경제지배는 계속됐고, 이제는 군사대국화로 언제 다시 일본의 군대가 한반도에 진주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허영구 직무대행은 ≪이번에 고이즈미 방한시 체결될 한일투자협정은 자본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해 결국은 일본 투기자본의 한국침투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요구와 선진기술 이전보장을 하지 못하는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허영구 직무대행은 ≪한일투자협정의 본질은 일본이 경제지배를 발판으로 군사적 진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외세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규탄연설을 통해 ≪지금은 90여년 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할 때와 똑같다≫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던 옛날 선열들처럼 지금 바로 우리 민중들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일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소속의 일본인 도마쯔 가쯔노리씨와 오하타 류우찌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들은 ≪일본의 해외경제침략은 군사대국화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평화를 사랑하는 한일민중들이 힘을 합쳐 투쟁하자≫고 발언해 참가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신대문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한일어업협정문제, 재일한국인의 지위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결의문 낭독 후 참가자들은 ▲고이즈미와의 정상회담 취소 ▲한일투자협정체결 중단 ▲일본의 친미군사대국화 반대 ▲정신대문제 배상 등을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가까운 한미은행 종로지점까지 거리행진을 한 후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오전 11시 이날 결의대회의 주최측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 반대와 한일투자협정 체결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대사관 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일본대사관의 접수거부로 간단한 항의집회를 가지고 결의대회가 열릴 종묘로 이동했다.

앞으로, 주최측은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기간 동안 계속해서 대규모 규탄집회 등을 열 계획이어서 지난 번 부시방한 반대투쟁 때와 같은 국민적 반대여론을 이번에도 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3/21

≪빌라 해명발언≫ 여야 공방

여야는 21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가회동 빌라 3개층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도감청문제와 연결시켜 해명한 것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명식(李明植) 부대변인은 ≪이 총재는 그동안 자신의 딸이 402호로 이사온 것이 살림을 돕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밝혀졌다≫며 ≪이 총재는 그동안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온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114평 빌라가 비좁아서 아래층을 손님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빌라게이트에 대한 해명이라면 이는 서민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킬 뿐이란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식(金成植) 부대변인은 ≪이 총재는 ≪딸이 위층에 살 경우 집안 일을 도와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청방지효과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을 뿐≫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한 확인도 없이 거짓말 운운하는 것은 이 총재를 흠집내려는 트집잡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흠집내기용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철 최이락기자
연합뉴스 2002/03/21

미국, 한국에 이지스시스템 판매 계획

미국이 3기의 이지스시스템을 한국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미국방부가 19일 밝혔습니다.

미국방부는 한국정부가 이지스시스템을 구매할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이에 따라 미화 12억달러 규모의 3기 이지스시스템을 한국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방부는 이 시스템이 한국구축함에 탑재될 경우 북의 미사일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미의회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F 1 5 K >전투기를 한국에 강매하려고 책동하고있어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지스시스템을 강매하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인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최신 전쟁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려는 것은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기어이 막아보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3월 20일

2 노작
• 꾸바공산당중앙위원회 기관지 ≪그란마≫부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4 세기와더불어
• 4장 7절 1930년 여름 (2)

6 칭송
• 류경수105땅크사단을 찾으시어
• 두고 떠나신 마음
• ≪화석원탁≫

7 구국의 소리
• 각계 민중들속에서 친일파청산운동이 힘차게 진행
• 구국의 소리 뉴스 – 3월 20일
• 부시는 6.15공동선언실행의 방해꾼
•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두고

9 조선중앙방송
• 최고사령관 받들어 승리의 10년
  – 로동신문 정론 주체90, 12월 24일

11 평양방송
•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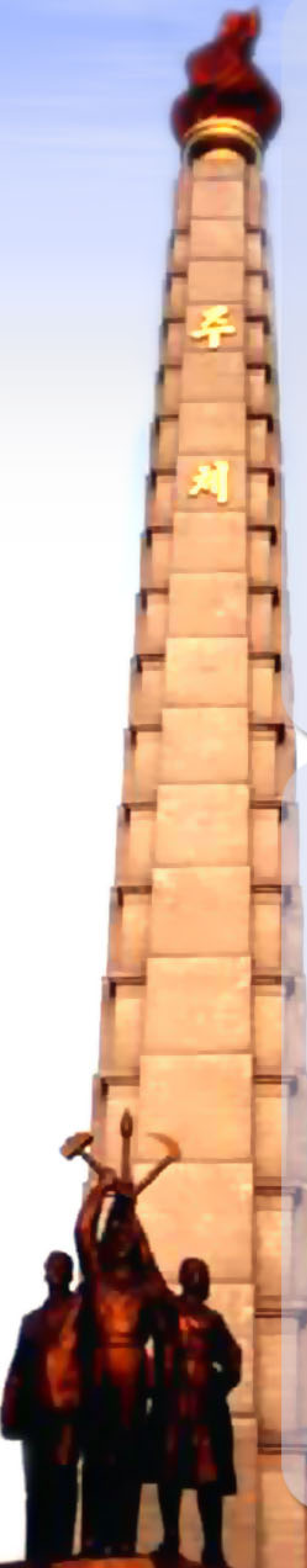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12 아리랑뉴스
• 마이크 선 하나로 갈리운 남북
• ≪금강산 모꼬지가자≫, 전국 대학가로 확산
• 한나라 소장파, ≪이총재측근 퇴진≫ 촉구
• 부산시민단체 후보자 공개운동 전개
• 대학가 등록금투쟁 각양각색
• 발전노조위원장, 삭발투쟁 돌입
• 김현희 KAL기 사건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 부평,미군부대 이전 찬반조사
• 한총련, 美製 불매운동 동참
• 공무원노조 출범 지지선언 불붙었다

15 운동강좌
•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 2 (1)

16 조국통일3대헌장
• 민족대단결과 그 구심점 (7)

꾸바공산당중앙위원회 기관지 ≪그란마≫부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발췌)

주체74(1985)년 6월 29일



나는 오늘 먼 라틴아메리카에서 온 손님을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당신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이 제기한 질문을 서면으로 받아 보았습니다.

당신이 여러가지 문제를 질문하였는데 편이상 개괄하여 대답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인 침략책동에 의하여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 난 때로부터 35년이 지나갔으나 우리 나라의 정세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았을뿐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긴장해 지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으로부터 35년전인 1950년 6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 버리려는 야망을 가지고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나 영웅적인 우리 인민앞에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에 대한 침략기도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전쟁책동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제는 조선반도를 저들의≪전선방위지역≫으로 선포하고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 남조선괴뢰군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최신살륙무기로 장비된 4만여명의 미군과 거의 100만명에 달하는 괴뢰군이 항시적으로 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1, 000여개의 각종 핵무기와 핵운반수단들이 배비되여 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끊임없이 증강하는 한편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소동을 빈번히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1976년부터 해마다 년례행사처럼 벌리고 있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이며 핵시험전쟁입니다.

미제는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 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제는 올해에도 또다시 대규모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리였습니다. ≪팀 스피리트 85≫합동군사연습에는 남조선에 있는 미군과 괴뢰군,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에 있는 미군 20여만과 항공모함, 핵적재기를 비롯한 수많은 현대적무기들이 동원되였는데 이것은 사실상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침략무력입니다.

미제는 ≪팀 스피리트 85≫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공화국북반부를 공격하기 위한 ≪전투준비태세를 개선할것≫이라고 떠벌이면서 우리의 전연과 후방을 전면적으로 동시에 공격하는 전쟁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방대한 병력과 최신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벌린 ≪팀 스피리트 85≫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에 있어서 사상최대의 군사연습이였습니다. 미제의 이와 같은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서 열리였던 북남대화는 일시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조선의 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우리 인민의 평화통일위업을 가로 막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책동입니다.

미국은 미, 일,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을 조작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침략하는데 일본 ≪자위대≫무력까지 동원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미제는 지난해부터 미일≪공동≫군사훈련을 더욱 빈번히 벌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이 참가하는 합동군사연습에 일본≪자위대≫무력을 끌어 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미, 일, 남조선사이의 군사적결탁이 강화되는것은 매우 위험한 징조입니다.

미제의 끊임 없는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은 중미주와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 곳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우리의 주변나라 인민들과 전세계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습니다.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우리 나라의 정세가 완화될수 없으며 조선의 평화가 담보될수 없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하루빨리 철수하고 우리 나라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가게 되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이 없어 지고 정세가 완화될것이며 조선문제해결의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될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해방후 40년동안이나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가장 절박한 투쟁과업입니다. 조국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우리 인민은 민족분렬로 인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 날수 있으며 온 민족이 다같이 진보와 번영의 길로 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방침과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의 통일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커다란 장애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큰 장애로 되는것은 미국이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있는것입니다.

미국은 우리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하여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것을 대조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고 책동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미국사람들이 바라는대로 ≪두개 조선≫으로 여원히 갈라 져 살수 없으며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식민지로 계속 틀어 쥐고 있는것을 허용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 놓으려는 온갖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야 말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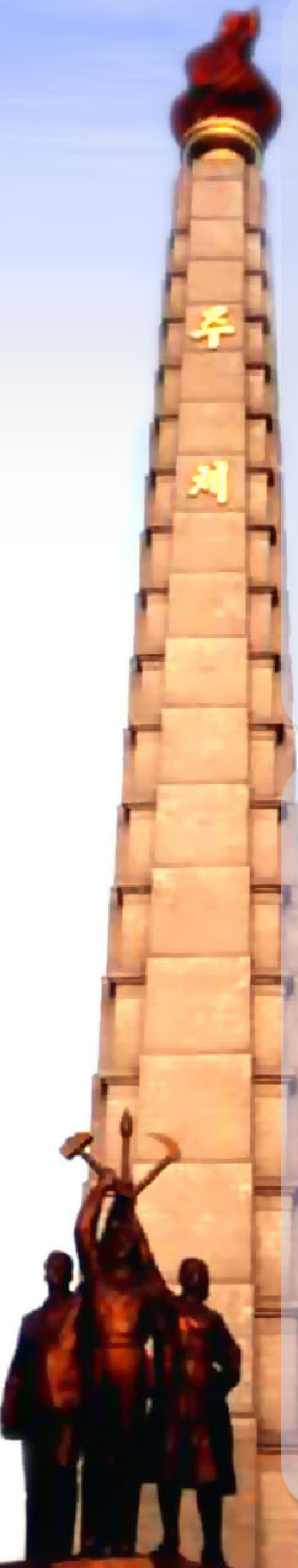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립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난해에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주는 우리의 동포애적조치가 실현된 좋은 기회에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주동적으로 북남경제회담을 진행할것을 발기하였으며 적십자회담도 다시 열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북과 남사이에는 경제회담이 새로 시작되고 12년동안이나 중단되였던 적십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였습니다.

제8차 북남적십자회담에서는 이미 합의한 5가지 의제를 일괄로 토의하며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래왕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에 남조선측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립장을 표명하였으며 며칠전에 진행된 제3차 북남경제회담에서는 우리 측이 제기한대로 쌍방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측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것은 두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올해에 들어 와서 우리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의 자주적

우리 인민은 미국사람들이 바라는대로 ≪두개 조선≫으로 여원히 갈라 져 살수 없으며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식민지로 계속 틀어쥐고 있는것을 허용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 놓으려는 온갖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야 말것입니다.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북남국회회담을 열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새로운 평화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제의한 북남국회회담은 북과 남의 각계층 인민들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의 광범한 의사를 모을수 있고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효과적인 대책을 취할수 있는 권위 있는 정치회담입니다.

우리는 북남대화를 경제회담이나 적십자회담에 국한할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높은 급의 권위 있는 회담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자는것입니다.

우리가 북남국회회담을 열데 대하여 제의한지 거의 두달이 지나서야 남측에서 회답이 왔는데 그들은 북남국회회담에서 ≪통일헌법≫제정문제를 협의하자고 하였습니다. 남조선측이 북남국회회담을 열자는데 대하여서는 동의하였지만 거기에서 토의하자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좋은 결실을 가져 오게 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를 다할뿐아니라 북남국회회담도 빨리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북남대화의 전망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측이 어떤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대화에 림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지금 대화에 림하는 립장과 자세에서는 북과 남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통일하여 하나의 조선을 만들려는 립장이라면 남조선측은 미국의≪두개 조선≫정책에 추종하는 립장입니다. 남조선측이 우리와 같이 나라를 통일하여 하나의 조선을 만들려는 립장을 가지고 대화에 림한다면 북남대화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될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조선측이 대화에 림하여서도 계속 미국의 ≪두개 조선≫정책에 추종한다면 회담을 질질 끌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분렬을 고정화하기 위한 대화로 되여서는 안되며 오직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여야 합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한 대화는 철저히 7. 4남북공동성명에 밝혀 져 있는대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여야 합니다. 남조선측은 진심으로 조국을 통일하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대화에 림하여야 합니다.

또한 남조선측은 우리 나라의 정세를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여야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국, 남조선사이의 3자회담의 전망도 역시 미국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해에 우리와 미국과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3자회담을 제의하였습니다. 3자회담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이 채택되면 우리 나라에서 평화가 담보될것이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될것입니다.

우리의 3자회담제안은 지금까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제기하여 온 요구도 충분히 고려한것인것만큼 미국이나 남조선당국이 접수하지 못할 그 어떤 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빈말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성의 있게 응하는것으로써 그 진실성을 보여 주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응해 나오기를 인내성 있게 기다릴것입니다.

(끝)

정치사전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미제침략자들이 ≪팀 스리피트(합동정신)≫의 이름밑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해마다 남조선에서 벌리고 있는 모험적이며 침략적인 군사훈련.

미제가 남조선과 미국본토, 태평양지역의 미제침략군부력과 남조선괴뢰군을 동원하여 1976년부터 해마다 벌리고 있는 ≪팀 스피리트≫군사훈련은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의 방대한 미제침략군무력의 남조선에로의 기동전개능력과 련합작전능력을 높이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투준비태세를 검토완성하기 위한 침공작전훈련이며 놈들이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할 때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실전훈련이며 시험전쟁이다.

도발적인 이 군사훈련은 미제의 대아시아정책의 산물로서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전 조선반도를 장악하는것, 바로 여기에 이 훈련을 벌리는 궁극적목적이 있다.

이 군사훈련이 초기에는 미국본토의 자기병력을 남조선에 긴급수송하는 정도의 소규모훈련이였으나 그후 이 훈련은 계단식으로 늘어 나 이에 참가하는 병력수에서나 작전장비에서 옹근 하나의 큰 전쟁을 치를수 있는 규모로 확대되였다.

…

특히 1985년도의 훈련에는 오래전부터 ≪핵배낭≫훈련을 해 온 특수부대인 ≪푸른 베레모≫까지 끌어 들여 직접 ≪핵배낭≫을 지고 상대측후방에 침투하여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파괴하고 모조리 불 태우는 악마의 훈련까지 감행하고 있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은 계단식으로 확대되면서 그 성격도 더욱더 공격형으로 바꾸어 지고 있다. 한 때 이 훈련에서 방어와 공격을 결합하여 진행하던 미제는 1981년부터 전면적인 공격훈련에 들어 서기 시작하였으며 훈련내용에서 공격과 방어의 비률은 8대 1이다. 미제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공격전략≫은 상용무력과 핵무기, 전자수단들을 종합적으로, 립체적으로 동원하여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이 공화국의 전 지역을 전쟁터로 삼을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훈련은 핵타격을 기본으로 하는 ≪단기전쟁전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또한 훈련지대도 종전의 한강 이남지역으로부터 한강이북군사분계선 남쪽까지 바싹 북상시켜 이 지대를 사실상 북침을 위한 공격출발진지로 삼고 있다. 미제는 ≪팀 스리피트≫합동군사훈련을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미제는 이 군사훈련을 통하여 미일남조선이 공동작전계획에 따라 공동군사행동을 취함으로써 이미 미국 일본, 미국남조선사이의 작전지휘 체계의 일원화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리하여 ≪팀 스리피트≫합동군사훈련은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총사령부와 도꾜에 있는 핵전쟁지휘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자위대≫의 ≪중앙지휘소≫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괴뢰군련합사령부의 지휘통신정보 체계가 하나로 련결된 공동작전체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제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을 ≪비도발적인 년례행사≫로, 이른바 ≪남침위협≫에 대비한 ≪방위훈련≫으로 묘사하면서 세계여론을 기만하려 하고 있으나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실은 이 군사연습이 단순한 훈련의 테두리를 벗어 나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 갈수 있는 예비전쟁이라는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해마다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벌리고 있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은 놈들이 떠벌이고 있는 ≪긴장완화≫요, ≪평화≫요 하는것이 거짓말이며 그들이 조선에서 추구하는것은 의연히 전쟁과 분렬정책이라는것을 그대로 확증하여 주고 있다.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7. 1930년 여름 (2)

리재순과 헤어진 나는 한광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한광은 어데 피신했을 수 있지만 한영애는 여자이기 때문에 집에 있지 않겠는가, 그가 내 형편을 알기만하면 목숨을 내대고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기대가 들었다.

그러나 집에는 한광도 없고 한영애도 없었다. 그 옆집 아주머니에게 행처를 물어보았더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조선청년들 중에서 운동이나 좀 한다고 하던 사람들은 다 숨어버렸으니 이제는 찾아갈데도 없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누가 고자질을 했는지 경찰들이 막 뒤쫓아오고 있었다. 이제는 잡혔구나하고 내 자신도 사태를 아주 절망적으로 판단한 그 순간에 한광의 옆집 여자가 그래도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변이 위험한 것 같은데 어서 부엌으로 들어오십시오≫하면서 자기가 업고 있던 아이를 재빨리 업혀주었다. 그리고는 ≪대답은 내가 다 할테니까 선생님은 가만히 앉아서 불이나 때십시오≫라고 하였다. 아마 그 당시의 내가 아이아버지처럼 위장해도 일없으리만큼 나이보다 퍼그나 숙성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등에 아이를 업은채 부지깽이를 들고 부엌봉당에 앉아 그 여자가 시키는 역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혁명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어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으로 당해보았다.

경찰들은 문을 열어제끼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방금 이리로 온 청년이 어디로 갔는가?≫하고 물었다.

그 여자는 ≪청년이라니, 어떤 청년말입니까?≫하고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 중국말로 넌지시 아무도 없으니 들어와서 밥이나 자시겠으면 자시라고 하였다.

등에 업힌 아이는 낯이 설다고 자꾸만 울었다. 그 아이를 달래기는 달래야겠는데 서투르게 달래다가는 정체가 드러날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부지깽이로 아궁이만 뒤적거렸다.

경찰이 어디로 뛰었을까, 잘못보지는 않았는가고 저희들끼리 떠벌이다가 다른 집으로 가버렸다.

그들이 사라진 다음 아주머니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경찰들이 마을에서 떠나갈 때까지 ≪주인≫노릇을 더 해 주십시오. 우리 주인이 밭에 나가있는데 들어오라고 알리겠으니 마음놓고 있다가 그이가 온 다음 함께 대책을 의논해봅시다.≫ 그리고는 나에게 밥을 차려주고 밭에 나갔다 들어왔다.

얼마후 경찰들이 다시 나타나서 나더러 심부름을 시킬것이 있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다. 그 아주머니는 침착하게 ≪앓는 사람이 어떻게 심부름 가겠습니까. 정 바쁘면 내가 대신 갔다오지요≫하고는 나대신 놈들이 시키는 심부름을 다 들어주고 돌아왔다.

이처럼 그 여자의 도움으로 아슬아슬한 고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소박한 촌여성이지만 기발하고 지혜가 있었다. 혁명의식도 상당히 높은 여성이었다.

나는 이름모를 여인의 모습에서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날 친분관계를 믿고 찾아갔던 아버지의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생판모르는 그 아주머니가 생사를 가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었다. 오로지 혁명가를 돕는다는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그처럼 희생적으로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준 것이다. 사람이란 어려운 때에 진가를 알아볼 수 있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생명까지도 서슴지않고 의탁할 수 있는 결백하고 견실한 의리는 역시 근로하는 인민들속에 있었다. 그러기에 나는 늘 전우들에게 혁명을 하다가 곤란한 일이 생기면 인민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배고파도 인민을 찾아가고 물을 먹고 싶어도 인민을 찾아가며 슬픈 일이 생겨도 인민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그 아주머니가 좋은 아주머니였다. 지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에게 절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해 겨울 만주지방에서 활동하는 조선혁명군 지휘성원들과 지하조직책임자들이 오가자에 모여 회의를 할 때 나는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동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여튼 성주동무는 운이 좋아. 운이 좋으니까 하늘이 도운거지≫하였다.

나는 운이 좋아서 내가 봉변을 면한 것이 아니라 인심이 좋아서 군벌에게 잡히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인민이 하늘이고 민심이 천심이더라고 말하였다. 그때부터 ≪교하의 아주머니≫라는 말은 슬기롭고 희생적인 우리 인민을 상징하는 하나의 대명사, 어려운 고비에서 자기를 희생시켜 혁명가를 도와주는 것이 체질로 되어있는 여성들을 상징하는 뜻깊은 대명사로 되었다.

나는 지금도 폭양에 그슬리고 피로 얼룩지던 1930년 여름을 회상할 때마다 교하를 생각하고 잊을 수 없는 교하의 아주머니를 그려보군 한다. 수십년을 두고 아무리 수소문해도 종적을 찾을 수 없는 그 여인을 회고할 때면 60년전 그날 그 아주머니의 이름도 묻지 못하고 훌연히 교하땅을 떠난 실수를 가슴아픈 자책에 잠기군 한다.

그때 이름이라도 알아두었더라면 온 세상에 광고라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해방후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하여 많은 은인들이 나를 찾아왔다. 이역에서 살다가 헤어진 지 반세기만에 백발로인으로 나타난 은인들도 있었다. 어려운 때에 나를 도와준 적지 않은 은인들이 나를 만났고 해방된 조국땅에 돌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그런데 교하의 아주머니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그 아주머니 자신은 1930년 여름에 있었던 극적인 순간을 범상한 일로 여기고 그것을 죄다 망각해버렸는지도 모른다.

60년전의 은인은 아무런 소식도 자취도 없이 대지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좋은 옥일수록 땅속에 깊이 묻히는 법이다.

밭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온 후에야 아주머니는 나에게서 아이를 받아내리었다. 그때의 일은 그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탐정소설 같은 이야기이다.

나는 내 이름을 제대로 대줄 수가 없어 가명을 대고 그저 혁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인과 인사를 나누었다.

주인은 자기도 혁명을 하던 사람인데 조직과의 연계가 끊어져 속수무책으로 있다고 하면서 앞집에 큰개(밀정)가 있으니 주의해야겠다고 하였다. 그의 말이 한광은 북만으로 뛰고 한영애는 탄압이 심하여 늘 피해다니는데 지금 그를 만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런 말까지 듣고나서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 앞집에 밀정이 있으면 이 집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다. 집에 숨어있다가 정세를 봐가며 다시 돈화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돈화라는 곳이 일본인들이 거점을 두고 있는 고장인데다가 공산당 화요파 본부가 있던 곳이어서 수색이 심했다. 어지간한 조선사람들은 벌서 5.30폭동직후에 거의 다 검거되고 여자들밖에 없었다. 그런 고장에 가서 발을 붙일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어두워진 다음 그 주인의 안내로 교하시내에서 15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외딴 초막으로 갔다. 이 집 로인부처가 또한 매우 친절한 분들이였다.

이날밤 나는 우리 혁명가들이 언제나 믿고 의지할 곳은 인민들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니 잠은 오지 않고 별의별 생각이 다났다. 만나야 할 사람은 한명도 찾지 못하고 며칠째 줄곧 헛물만 켜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인가, 이런 때일수록 피동에 빠지지 말고 역경을 헤쳐나가야 한다. 수세에 빠지면 끝장이다, 그래도 활동을 해야지 이런데 숨어다니기만 해서야 무슨 일이 되겠는가,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동만에 나가 혁명을 추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날이 밝은 다음 뜻밖에도 한영애가 그 집에 나타났다. 내가 동만지방으로 나온다는 통보를 받은 한영애는 은신처를 찾아 집을 나설 때 오른쪽 볼에 보조개가 있는 분이 오면 자기가 숨어있는 곳에 연락해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1년만에 만나는 셈이었다.

고생 끝에 그를 만나고보니 어떻게 반가왔든지 한동안은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기만 하였다. 한번 웃기 시작하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통쾌하게 깔깔거리군 하던 그의 얼굴이 한해사이에 살이 빠져 몰라보게 되었다.

한영애의 말을 들어보면 간도도 살풍경이라 하였다.

나는 한영애에게 ≪이렇게 숨어있어야 무골충이지. 그래도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소. 일제놈들이 당장 쳐들어오겠는데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놈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하겠소. 조직들을 빨리 수습하고 인민들을 각성시켜야 하오. 그저 무섭다고 숨어서 떨기만 할 수야 없지 않소≫라고 하였다.

한영애는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때에 그런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난다고 하였다.

≪아무도 없는 여기에 앉아있어서는 방법이 없소. 조직과의 연계를 지어줄터이니 할빈으로 가기요.≫

한영애는 조직과의 연계가 끊어져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헤덤비고 있었는데 마침 잘되었다고 하면서 기뻐하였다.

국제당과의 연계를 짓기 위하여 김혁을 할빈에 파견하였지만 나는 그가 돌아와서 활동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할빈에 빨리 가서 국제당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폭동으로 여지없이 파괴된 조직들과 계엄상태와도 같은 무시무시한 긴장감에 짓눌린 도시와 농촌마을의 풍경은 나로하여금 좌경모험주의자들이 혁명에 끼친 해독이 얼마나 엄중한가하는 것을 다시 한번 통절히 느끼게 하였으며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1930년대의 첫 출발에서부터 우리 혁명이 불가피하게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리라는 것을 명백히 깨닫게 해주었다.

이론투쟁만으로써는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경모험주의자들의 망동을 저지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우리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하거나 혁명에 이로운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의 의사를 아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5.30폭동의 연장선위에서 우리가 그처럼 우려하던 8.1폭동이 끝끝내 폭발한 것은 그들이 길동지구당회의에서 우리가 내놓은 의견을 전면적으로 묵살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만주대지에서 거침없이 굴러가는 좌경모험주의의 수레바퀴를 멈춰세우자면 국제당의 방조가 필요하였다. 나

한영애

는 폭동에 대한 국제당의 견해를 알고 싶었고 그것이 국제당의 지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제멋대로 생각해낸 망동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만일 국제당이 그런 지령을 내렸다면 론쟁을 해서라도 그 수레바퀴를 멈춰세우고 싶었다.

우리는 적들의 경계가 심한 조건에서 둘다 중국 사람으로 변장하고 차를 타기로 하였다.

그날 한영애는 진종일 교하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이 입고갈 신사옷과 신발을 준비하고 여비를 마련하였다. 군경들의 의심을 덜 받기 위하여 트렁크에는 화장품도 넣었다. 그의 도움으로 할빈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

나는 할빈부두가의 상부가입구에 있는 국제당연락소에 찾아가 연계를 맺고 그곳 사람들에게 한영애를 소개한 다음 5.30폭동과 8.1폭동으로 하여 동만에 조성된 사태에 대하여 통보하고 카륜회의 정형을 소개하였다.

국제당연락소에서도 두 차례의 폭동에 대해서는 모험주의라고 평가하였다. 연락소에서 나를 만나준 사람은 자기 견해로 볼 때에는 카륜회의에서 우리가 채택한 결정들이 다 조선의 실정에 맞고 혁명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대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카륜회의에서 새로운 당창건방침을 내놓고 그 모체로 되는 기층당조직으로 건설동지사를 내온 것에 대해서도 그는 1국1당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국제당으로부터 우리 혁명의 생명으로 되는 자주성의 원칙, 창조성의 원칙, 우리가 내세운 모든 노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때 국제당에서는 나에게 모스크바에 자기네가 운영하는 공산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유학을 갈 생각이 없는가고 물었다.

나는 모스크바에 그런 대학이 있다는 것과 우리 나라에서도 조선공산당의 추천을 받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들이 그 대학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봉암, 박헌영, 김용범과 같은 사람들도 이 대학을 다녔다. 모스크바유학에 대한 동경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당시 만주지방 청년들속에서 ≪모스크바유학가≫라는 노래까지 불리워지고 있었다.

나는 혁명실천에서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가고는 싶어도 지금은 갈 형편이 못된다≫고 대답하였다.

1989년에 문익환목사를 만나 여담으로 할빈에 대한 애기를 꺼냈더니 그는 자기 아버지도 그 무렵에 할빈에서 국제당이 선발한 유학생들을 쏘련에 넘겨보내는 일을 했다고 하였다. 국제당에서는 나에게 길동지구 공청책임비서사업을 위임하였다.

김혁이 3층집에서 떨어져 감옥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우리는 국제당연락소를 통하여 입수하였다.

김혁의 체포때문에 나와 한영애는 할빈에 체류하는 기간내내 침통한 기분으로 지냈다. 김혁이 철쇄에 묶인 것이 너무도 애석하여 한번은 그가 떨어졌다는 도리의 3층집앞에 가보기까지 하였다.

도리의 상점들과 식당들에는 기름진 음식이 많았으나 우리한테는 그것이 다 그림의 떡이었다.

국제당에서는 하루용돈으로 15전을 주었는데 할빈생활이라 그것이 15전을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었다. 보통여관에 들면 숙박검열이 심하여 혁명가들이 배겨있을 수 없었다. 경관들이 드나들지도 않고 숙박계도 내지 않는 여관이란 백계로씨아인들이 경영하는 여관밖에 없었다. 이 여관에서는 식비와 숙박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돈많은 자본가들이나 들었지 우리같은 사람들은 명함을 들이대기도 어려운 호화여관이였다. 나는 여러 가지로 타산하던 끝에 하루 한끼씩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한 고급여관에 들기로 하고 여성들에 대한 단속을 별반 하지 않는 일반여관에 한영애를 들게 하였다.

여관에 들고 보니 그 내부가 이만저만 요란하지 않았다. 여관에는 상점, 식당, 오락장, 딴스홀 같은 시설은 물론 영화관까지 있었다.

나는 돈도 없이 여관에 거처를 정했다가 딱한 경우를 여러번 당하였다. 내가 첫날 여관에 들어갔을 때 로씨아안내원여자가 손톱을 깎으면 돈을 물어주어야 하겠으므로 나는 다 깎았다고 하였다. 안내원이 나가자 이번에는 접대원이 꼬리를 물고 따라들어와서 어떤 음식을 청하겠는가고 물었다. 궁색한대로 또 동무의 집에서 먹고 왔다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단련을 날마다 받으면서도 돈이 없는 탓으로 여관에서는 식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 자기만 하였다. 식사는 하루일을 마치다 보고 저녁에 한영애와 함께 거리에 나가 눅거리강냥지점을 한두점 사먹는 것으로 굼때였다.

언제인가 우리 나라에 온 류소기를 만나 그 사연을 애기했더니 그는 자기도 그해 할빈에 있었다고 하였다. 당원둘중에 중국사람은 없고 조선공산당원 몇사람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국제당에 관계하지 않았는가고 하였다. 시기를 따져보면 류소기가 할빈에서 활동하다가 돌아간 직후에 내가 거기에 가서 국제당일군들을 만난 것 같다. 나는 한영애에게 과업을 주고 흩어진 조직성원들을 찾도록 하였다. 한영애는 길림시절부터 연계를 가지고 있던 할빈공청지부의 한 아무개라는 사람과 연계를 가지고 그를 통하여 지하에 숨어있는 조직성원들을 한명두명 찾아내어 카륜회의 방침을 해설하였다.

나도 김혁이 공작하던 철도와 항만에 들아가서 혁명조직의 영향밑에 있는 로동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할빈에서 지하조직들을 수습하고 동지들 사이에 서로 연계를 지어준 다음 한영애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서 돈화로 나왔다. 분초를 다투는 때여서 한영애하고는 고맙다는 인사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내가 떠날 때 한영애는 함께 따라가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할빈 동무들이 자꾸 남겨두고 가라고 해서 그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동만에 나온 후 그것이 늘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지만 지하공작규율상 편지연락을 못하게 되어 있어 서로 소식도 모르고 지냈다.

한영애의 그후 운명에 대해서는 당역사연구소동무들이 수집한 자료를 보고 훨씬 후에야 알게 되었다.

내가 돈화로 나올 때 할빈의 혁명조직들에 서한을 남긴 것이 있는데 한영애는 그 서한을 통해 내가 할빈동무들에게 준 과업을 실행하느라고 뛰어다니다가 1930년 가을에 경찰에 체포되었다. 어지간한 여성들 같으면 집이 그리워서라도 교하로 돌아갔겠지만 한영애는 할빈에 그냥 남아서 밤잠도 자지 않고 내가 준 과업을 수행하였다. 말이 적고 양순한 처녀였지만 일단 혁명사업에 들어가면 이악하고 과감하게 활동하였다.

한영애는 붙잡히자마자 신의주감옥으로 끌려가 거기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것은 리종락, 박차석을 비롯한 ≪ㅌ·ㄷ≫시절의 연고자들이 무리로 붙잡혀 감옥으로 끌려가던 시기였다. 그래서 그는 리종락이와도 한 감옥에 있게 되었다.

그후 리종락이 한영애를 만난 자리에서 ≪나도 김성주와는 잘 아는 사이이고 너도 김성주의 지도를 받던 여자이니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그를 귀순시켜보지 않겠는가. 생각이 있으면 우리 ≪귀순공작대≫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한영애는 즉석에서 그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는 리종락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못쓴다, 우리가 김성주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그따위 너절한 배신행위를 하겠는가, 출두한 다음 혁명을 못하면 말았지 그따위짓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1938년 겨울 우리가 남패자에서 회의를 할 때 나를 ≪귀순≫시켜보라고 회의장소에 들어왔던 리종락이 이런 사연을 다 고백하였다.

그렇게 되어 나는 그동안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한영애의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그가 감옥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혁명가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종락이나 박차석같은 사내들은 감옥맛을 보기 바쁘게 다 전향문에 도장을 찍었지만 한영애는 여성의 몸으로 그 고초를 용감하게 이겨냈다.

≪해산사건≫이후 도처에서 혁명가들이 무리로 잡혀가고 투쟁의 길을 걷던 사람들 가운데서 배신자들이 생겨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주고 있던 때에 그런 소식을 들은 것만큼 나로서는 무척 감동도 되고 고무도 받았다.

한영애는 중국 단동시에 있는 고무공장에서 제화로동도 하였다. 그는 로동을 하면서도 동포들에게 길림시절에 부르던 혁명가요를 보급하였으며 로동자들의 권익을 지켜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도 사람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한영애는 그후 서울에 나가 몇해동안 홍명희 선생의 아들집에서 처녀시절을 보냈다. 그는 조직선을 찾아 다시 만주로 들어가려고 여러해동안 모대기다가 늦게야 결혼하였다. 비록 머리를 쪽지고 가정에 묻히는 몸이 되기는 하였으나 우리와 함께 혁명을 하느라고 뛰어다니던 그 시절의 양심과 지조는 조금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무장을 들고 백두산일대에서 적들을 한창 답새기고 있을 때 한영애는 서울에서 그 소식을 듣고 길림시절의 동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다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승리를 빌었다고 한다.

그의 남편은 해방후 남로당원으로 지하활동을 하였는데 후퇴시기 적들에게 피살되었다.

한영애도 전쟁시기 서울근처에서 여맹조직을 책임지고 전선원호사업을 잘하였다. 남편이 피살된 후에는 나를 찾아간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평양에 들어왔다. 그러나 나를 만나지 못하고 1951년 8월 14일밤 적들의 폭격에 두 아이와 함께 애석하게도 희생되었다.

나는 한영애가 일생을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길림시절의 호흡과 발걸음으로 전생애를 살아왔다. 노래를 불러도 길림시절의 노래를 불렀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한영애와 같이 절해고도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양심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나의 일생에서는 한영애도 잊을 수 없는 은인이였다. 그는 어려운 때에 나를 찾아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고마운 여성이였다.

해방이 되어 조국에 돌아와 한영애의 행처를 수소문하니 그는 공화국경내에 없었다.

해방전에는 항일전쟁을 하느라고 그를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가 나의 변장에 필요한 붕국옷을 얻느라고 땀을 흘리며 무더위속을 뛰어다니던 일과 열차에서 군벌들의 조사를 받을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위험한 순간순간을 모면하면서 내 신변을 보호해주던 일, 한점의 지짐떡을 먹으면서도 매번 그것을 절반으로 갈라서는 그중 한쪽을 내앞에 조용히 밀어놓군하던 일들을 나는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가 나를 위해 한 모든 봉사는 사랑이나 연정과 같은 감정을 훨씬 초월한 깨끗하고 사심없는 동지애의 산물이었다. 그가 평양까지 들어왔다가 나를 만나보지 못하고 폭격에 희생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애석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다행히도 젊은 시절의 그의 사진이 기적적으로 보존되어 내 손에까지 들어왔다. 이 세상에 없는 은인들 생각이 가슴에 차오를 때면 나는 나의 청춘시절에 큰 자국을 남긴 한영애의 아름다운 넋을 사진에서 찾으며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군 한다.

(끝)

일화

류경수105땅크사단을 찾으시어

장군님께서 1996년 12월 초 근위서울 류경수105땅크사단을 현지시찰하신 그날도 례년에 없던 강추위가 들이닥쳐 맵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세차게 기승을 부리는 날이였다.

하루전에 일군들로부터 불리한 일기조건이 예견된다는 보고를 받으셨지만 그분께서는 현지시찰을 미루지 않으시고 땅크부대를 찾으셨다.

부대에 이르신 그분께서는 환영 나온 군인들과 가족들의 모습을 눈 여겨 보시다가 어제밤에 이 일대에 눈이 많이 내려 그런지 날씨가 몹시 춥다고 하시면서 군인가족들이 외투를 입지 않았는데 빨리 외투를 입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그분께서는 그곳 부대의 한 책임일군의 옷차림도 걱정스럽게 살펴 보시다가 야전복차림을 하였는데 빨리 외투를 입어야 하겠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추울 때 몸간수를 잘하지 않으면 폐염에 걸릴 수 있다고 근심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자신께서는 두툼한 털신도 아닌 보통구두를 신으시고 장갑도 끼지 않으신채 오히려 전사들의 건강부터 념려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일군은 뜨거운 감동에 몸둘바를 몰라 했다.

그분의 현지시찰은 그날 장시간 계속되였는데 그 많은 시간의 대부분을 줄창 찬바람 부는 밖에 서계시였다.

수수한 솜동복을 입으신채 부대의 여러 곳을 일일이 돌아 보신 그분께서는 땅크병들의 훈련을 보아 주시기 위하여 찬바람 세찬 훈령장감시대에 오르시였다.

그곳에서 1~2분도 아닌 장시간동안 훈련을 보아 주시느라 장군님께서 또 얼마나 로고를 겪으시겠는가, 수행원들의 가슴은 안타까움에 옥죄였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땅크훈련장 감시대에 올라 서보시니 바닥의 요소요소에 불돌이 깔려 있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 오르실 땅크훈련장 감시대바닥에 불돌을 놓아 추위를 조금이나마 가셔 드리자고 전사들이 큼직큼직한 돌들을 찾아 내여 샘물에 정히 씻고 또 씻어 삼단 같은 불길에 달구었던것이다.

소박하면서 진실한 전사들의 그 소행이 못내 기특하신듯 그분께서는 불돌에서 좀처럼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다음날 장군님께서는 이곳 부대의 책임일군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어제 류경수105땅크사단을 돌아 볼 때 발이 몹시 시렸다고, 그런데 땅크훈령장 감시대에 올라 가니 전사들이 그 바닥에 불돌을 가져다 놓았더라고, 그 불돌을 보니 가슴이 후더워 져 일시에 추위가 다 가셔 지는것 같았다고, 이 세상에 우리 인민군전사들처럼 자기 최고사령관에게 충실한 전사들은 없다고, 우리는 전사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복으로 말한다면 인민군전사들이 누리고 있는 수령복, 최고사령관복보다 더 큰 복이 어데 있으랴만 오히려 그분께서는 전사들의 크지 않은 소행을 두고서도 감동을 금치 못해 하시며 전사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무더위와 강추위속에서도 이어 지는 장군님의 군시찰의 길, 그 길은 장군님께서 전사들에게 베푸시는 수령복, 전사들이 장군님께 바치는 충성심의 혼연일체의 서사시적화폭으로 수놓아 지는 력사의 길이며 여기에 그분의 헌신적군령도의 위대성이 있다 하겠다.

송시

두고 떠나신 마음

두고 떠나신 마음 **장에 머물러
낮에도 밤에도 샘물은 끓고
두고 떠나신 마음 합숙과 가정들에도 따사로와서
그이는 오늘도 여기 철의 도시에 **진다

허나 **에서는 그이께서는 자신의 마음 한끝을
지하깊은 막장에 그대로 두고 가셨다 이야기하고
서해갑문건설자들은 그이의 마음 한끝이
대자연개조의 격전장에서
전진의 깃발로 불타고 있다 하네

그리도 다정다감하시고
그리도 매사에 자상하신 분
그리도 담대호방하시고
천리도 순간에 꿰뚫어보시는 분

그이 한번 웃으시면
흐렸던 하늘도 활짝 개이고
그이 주먹을 불끈 틀어쥐시면
천하 온갖 원수들이 숨을 딱 멈추나니

그이 청춘시절에 자신의 마음 한끝을
튼튼히 이어주신 철의 진지
여기 강철로 우리 당을 옹위해 가는 영광스러운 초소에서
내 오늘 새삼스러이 가슴 뿌듯해지는 생각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를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모시어
이제는 우리에게 세계도 우주도 커보이질 않는구나

흠모

≪화석원탁≫

≪화석원탁≫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노동당창건 40돌에 즈음하여 마다가스카르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디디에 라찌라까가 드린 선물이다.

디디에 라찌라까대통령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자주시대의 탁월한 영도자로 높이 존경하며 흠모하고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대통령의 이러한 존경과 흠모의 정은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과정에 그이의 위대성과 영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깊이 체득하면서 더욱 두터워졌다.

대통령은 우리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됨으로써 날마다 새롭게 변모되어 가는 조선의 현실에서 깊은 감동을 받군 하였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돌려주시는 자기자신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은정, 새 생활 창조를 위한 마다가스카르인민의 투쟁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은 그로 하여금 그이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게 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진정이 담긴 선물을 드리군 하였다.

조선노동당 창건 40돌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북방문을 예견한 대통령은 이 기회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선물을 올릴 것을 구상하고 그것을 마련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었다.

그는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선물을 마련할 데 대한 과업을 주고 어떤 진귀품을 선물로 드릴 것인가에 대하여 자신도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선물안을 가지고 온 일꾼에게 대통령은 한 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이한 재질로 뜻깊은 선물을 마련할 구상을 해 볼 데 대하여 지시하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일꾼은 동료들과 진지하게 협의하던 끝에 하나의 화석원탁을 도안하였다. 도안은 참으로 훌륭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원탁을 만들 수 있는 큰 화석을 구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유능한 석공들과 지질전문가들로 조를 뭇고 화석을 구하기 위한 치밀한 조직사업을 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무어 준 탐사조는 치라라나나 산줄기가 뻗은 험준한 산발들을 넘고 넘으면서 여러 날 동안 고심하던 끝에 직경 1m가 넘는 화석을 여러 개 채취할 수 있었다. 이 소식을 받은 대통령은 그들의 성과를 축하해 주고 원탁판가공을 다그치도록 고무해 주었다.

선물제작은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그 사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의 작업조건을 보장해 주었으며 원탁판이 다 가공되자 비행기로 그것을 실어오게 하였다.

화석원탁은 이렇듯 대통령과 선물제작조 성원들의 쉬임없는 사색과 탐구, 높은 열정에 의하여 훌륭히 마련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우리 나라를 방문한 디디에 라찌라까대통령은 화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묘한 자연무늬로 하여 매우 화려하고 우아한 화석원탁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선물로 올리었다.

이렇듯 이 진귀하고 뜻깊은 화석원탁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존경하고 열렬히 흠모하는 디디에 라찌라까대통령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각계 민중들속에서 친일파청산운동이 힘차게 진행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각계에서 국회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이 708명의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명단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친일파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굴욕과 수치, 수난과 고난으로 얼룩진 민족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 반일감정에도 부합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친일파들은 일제시기 수많은 항일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해 고문, 학살하는데 앞장섰고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통치의 하수인으로써 수족노릇을 해온 민족반역자들입니다.

친일파들은 민족과 겨레앞에 저지른 커다란 범죄로 하여 8.15광복이후 응당 청산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6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 오늘까지도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활개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일파청산이 지금껏 미완의 문제로 남아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역대 위정자들의 친일사대매국적인 정치행태 때문입니다. 그로하여 실질적으로 지난날 반민족 친일행적을 가진 자들이 지금도 무난히 정계와 사회에 포진해있거나 또 후손들이 늘어나 애비들처럼 민족반역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의 경우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는 1920년대부터 일제 검찰기관에 종사하면서 항일독립운동자들을 밀고, 처형하고 반일운동과 계몽운동을 탄압하는데 특출한 공로를 세운 특등친일주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등 친일역적이 8.15이후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를 비롯한 법조계의 요직을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말년에는 큰 포상까지 여러차례 받았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애비와 함께 청산됐어야 할 친일역적의 아들인 이회창이 정계에 돌아치며 민족반역행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일매국으로 출세한 애비의 핏줄을 타고 호위호식하면서 애비처럼 법관의 감투를 쓰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앞장선 의로운 인사들을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걸어 구속, 고문, 학살케한 이회창은 지금 대권욕을 채우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범죄행위들을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들과 이회창과 같은 그 후예들이 계속 이 땅에서 활개친다면 우리 민중의 자주적 존엄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이 땅이 미일의 속국으로써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이회창을 비롯한 친일족속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당파와 소속, 정견의 차이가 따로없고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참해야 할 전국민적 애국투쟁입니다. 누구든 민족정기를 잃고 제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기 마련입니다.

각계 민중은 친일파청산투쟁을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간주하고 친일파청산투쟁과 친일역적의 후예인 이회창을 정계에서 축출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0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20일

여성들의 천국 이북을 동경
한국여성노동자김영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소속 노동자 김영실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정치를 펴시는 이북사회를 여성들의 천국으로 높이 동경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국여성노조 등 여성노동단체들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중 동료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땅에 살고 있는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처지는 비참하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이 땅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생활의 모든 면에서 여성천시와 패륜패덕이 판을 치는 지옥과 같다. 그렇지만 이북의 여성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덕정치하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 이북 여성들은 해고와 비정규직, 성차별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사회와 가정의 꽃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나라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해 밀고 나가고 있다. 그리고 무료교육, 무료진료제의 혜택속에 육아걱정, 치료걱정을 모르고 보람찬 생활을 누려가고 있다고 한다. 정말 이북 여성들이 부럽기만 하다. 우리 이남 여성들도 이북과 같은 세상에서 인간다운 참된 생활을 누리자면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치를 받아야 한다.≫

투자협정체결저지공동집회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농, 국제연대정보정책센터, 민중의료연합 등 민주사회단체들과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학생행동연대가 망라되어있는 ≪투자협정 세계무역기구반대 국민행동≫이 15일 서울에서 투자협정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는 한미일사이의 투자협정체결을 저지하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결의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투자협정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초국적 자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써 협정의 체결은 한국민의 노동권,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것이며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회에서 전농 사무총장은 농민들은 더이상 생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이미 벼랑에 서있는 농민들이 죽음에로 굴러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항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도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연대사를 통해 투자협정체결은 민중의 운명을 초국적 자본과 독점재벌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투자협정협상과정에 일본은 한국철도의 사유와 해외매각을 강요하면서 일본철도자본이 한국철도를 장악하려는 속셈을 노골화했으며 미국은 전력, 가스 등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을 강요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투자협정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백만인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으며 일본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하는 600인 선언발표 등 여러가지 투쟁을 힘있게 벌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핵태세검토보고서 규탄
통일연대

통일연대는 13일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미국은 모든 패권적 전쟁야욕을 포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통일연대는 성명에서 미국이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며 핵무기, 대량살상무기개발의 당사국은 바로 미국이며 핵무기를 전쟁의 공격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위험천만한 국가도 미국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한반도를 핵참화의 마당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세계 모든 평화적 인류와 7천만 민족은 미국의 핵전쟁계획에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7천만 겨레는 핵전쟁계획을 짜놓고 민족분열을 촉진하는 미국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우리 민족은 조만간에 미국의 한반도핵전쟁책동, 내정간섭 및 6.15공동선언파탄음모를 철저히 분쇄하고야 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회창의 당내분수습방안 거부
한나라당 비주류 의원들

한나라당 비주류 중진인 김덕룡, 홍사덕의원은 이회창이 지시한 당내분수습방안을 거부했습니다.

이회창은 오는 5월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와 총재경선에 출마해서 모두 당선되더라도 총재권한대행체제로 전환해 당내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으나 총재직을 계속 유지할 것을 분명히 함에 따라 비주류와 소장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덕룡, 홍사덕의원은 19일 이회창의 당내분수습방안은 한나라당이 앞으로도 여전히 총재 1인지배체제정당으로 남을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제왕적 총재체제는 결코 변경할 수 없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개혁과 정당민주화라는 시대적 대의에 역행하는 이같은 수습방안은 국민적 열망을 유린하는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신당창당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장파모임인 미래연대도 이회창이 당권, 대권분리 등 핵심요구사항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부영부총재도 이회창의 쇄신안이 기대에 못미쳤다며 총재의 결단과 측근들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규탄대회
자민련

자민련이 한나라당의 이원종 충북지사 탈당권유사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민련은 18일 오전 마포당사에서 한나라당 규탄대회를 갖고 이회창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자민련은 규탄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이회창식 오만과 독선의 정치테러라고 비난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회창총재의 정치권퇴출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시는 6.15공동선언실행의 방해꾼

자주적 평화통일은 어제도 오늘도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지향이다.

이를 반영하여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선언했다.

6.15공동선언은 원칙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것으로 하여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적 판도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6.15공동선언의 채택발표로 하여 반세기이상 대결과 불신만이 지속돼 오던 한반도에는 화해와 협력, 대화와 교류의 장이 펼쳐지고 통일의 앞길에는 전환적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그대로만 나갔다면 조국통일문제에서는 상상외의 진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하여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희망과 기대가 커가며 한반도정세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극도의 불안과 위구를 느낀 것은 미국이었다.

국토분단의 장본인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체계의 유지를 위해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해 나섰다.

그것은 부시정권 출범이후 더욱 표면화, 노골화됐다.

집권후 부시는 선행 클린턴정권시기에 이북과 진행돼 오던 대화와 협상을 모두 차단하고 대북강경정책에로 나아갔다.

더욱이 지난해 미국에서 있은 9.11사건이후 반테러전의 미명하에 이북에 대한 압력은 더욱 증대됐다.

부시정권은 미사일의 개발이니 전파니 하는 구실을 붙여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했다.

이것은 이북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으며 이북으로 하여금 그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부시정권의 힘의 정책은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상태를 조성했고 그로하여 남북사이에 진행되어 오던 모든 대화와 교류를 정착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부시정권이 한반도정세를 인위적으로 격화시켜 6.15공동선언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진의는 한마디로 우리 민족을 해쳐 거기서 득을 보자는 것이다.

부시정권은 지금 이북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전략수행에 매달리며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의 불을 지르려 하고 있다.

그와 함께 한국의 안전을 구실로 ≪F-15≫를 비롯한 잉여군수장비를 팔아 돈도 벌고 한국의 ≪믿음직한 벗, 보호자≫로 둔갑하여 이 땅에 흐르는 반미기류를 해소시켜 보려고 꾀하고 있다.

실로 병주고 약준다는 속담, 등치고 간빼 먹는다는 속담 그대로 양키의 교활성과 악랄성, 파렴치성과 약탈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3월 21일)부터 실시되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근 60만의 한미연합군이 전후방 따로없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입체적으로 벌이는 이번 연습은 임의의 순간에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만일 이러한 훈련이 어떤 도발적 혹은 우발적 요인으로 하여 전쟁으로 번져진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혹한 후과가 빚어질 것이다.

침략과 전쟁의 화근인 부시정권의 힘의 정책, 강권정책은 변화될 수 없다.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은 그 부당성으로 하여 내외의 규탄과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지도자들은 물론 클린턴전 대통령, 올브라이트 전국무장관 등 미국내 정객들까지도 부시의 실정을 비난조소하고 있다.

부시는 6.15공동선언실행의 방해꾼, 평화의 파괴자, 악의 화신인 것으로 하여 전체 우리 민족의 증오와 분노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지난 2월 각지에서 벌어진 부시방한반대투쟁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시의 행각은 끝났지만 반미, 반부시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부시정권이 6.15공동선언실행을 가로막고 민족의 이익을 해치고 있는 이상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한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줄기차게, 근기있게.

동시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외세에게 바쳐가며 저들의 기득권만을 추구하는 소수의 민족반역무리들의 추악한 행태도 짓부수어 버려야 한다.

노선일 - 구국전선
주체91, 3월 21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두고

한반도를 이르러 세상사람들은 화약고라 하는데요. 성냥개비 하나를 잘못 그어도 순간에 무서운 참화를 빚어낼만큼 한반도의 상태는 첨예화되었다 하겠습니다. 다 미국때문이죠. 북침을 기정사실화하고 각종 전쟁연습에 광분해온 미국이 이제 곧 이 땅의 반통일세력과 야합하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벌이려해요. 이 소식에 접한 우리 청년학생들의 심정, 고려대 최모씨의 글을 들어보며 새겨봅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두고≫. 임현아씨 보내드립니다.

미군 수만명과 국군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곧 실시될 것이라고 한다.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연계하여 실시하기로 했다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발표에 접했었다.

나의 가슴은 미국에 대한 증오로 가득채워졌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원래 독수리훈련은 한미연합야외기동연습으로써 해마다 가을에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한미연합사령부는 독수리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와 함께 우리 청년학생들속에서는 각이한 주장들이 무성했다. 일부 학생들은 한반도정세를 고려한 미국의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9.11사건으로 말미암아 테러공포증에 시달리는 미국으로써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할 겨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독수리가 주춤거림은 발톱을 더 날카롭게 갈기 위한 거라며 미국의 책동에 예의주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으로 시간의 흐름은 빠르다. 그때가 가을이였는데 벌써 한겨울이 가고 새싹이 움트는 봄이 찾아왔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된다는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 한겨울 미국이 북침을 강행하기 위해 얼마나 피를 물고 식민지발톱을 갈아왔는가를 더욱 잘 알게 해주었다.

연습은 연합전시증원연습과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을 연계해 실시하는 것은 군사훈련을 보다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려는 것이지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이북에 대해 ≪악의 축≫이니 뭐니하며 갖은 악담을 늘어놓은 미국. 그 미국* 더더욱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는 이같은 전쟁연습이 곧 침략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기정의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6.15공동선언에 받들려 한반도에 평화와 단합의 기운이 높아가고 냉전의 기류가 사라지는 현실을 보며 우리 민중은 얼마나 가슴 부풀었던가.

그러한 한반도가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하여 현시기 첨예한 긴장이 감도는 행성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었다.

우리 민중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대규모군사연습까지 감행하며 온 겨레에게 핵참화를 덮씌우려는 미국의 책동은 반미자주없는 통일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 아무리 평화와 화해를 부르짖고 교류협력을 강화해도 반미자주를 외면하면 공염불이 된다는 것을 천으로 만으로 새겨주고 있다.

겨레의 통일기운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악을 품고 우리 민족의 분열을 강요해나서는 미국에 대한 원한과 분노로 피가 끓어번진다.

이것이 어찌 나만의 심정이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접한 이남 민중 모두의 심정이다.

지금 각계 민중이 부시방한반대투쟁을 벌이던 그 기세로 다시금 들고일어나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이 야합하여 벌이는 북침전쟁연습을 짓부셔버릴 의지로 가슴들을 불태우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실시와 함께 지금 지구촌을 뒤흔드는 우리 민중의 더욱 격노한 반미함성을 굳게 느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번 전쟁연습기간을 반미항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는 계기로 삼고 과감히 싸워나가야 할줄압니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8일~19일

패트리어트 최신 개량형인 PAC-3

최고사령관 받들어 승리의 10년

로동신문 정론 - 주체90, 12월 24일

하나의 성스러운 년대기가 인민의 심장을 틀어 잡고 있다.

백두의 령장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력사의 새 시대, 위대한 선군시대를 폭풍쳐 온 10년,

참으로 흘러 간 10년은 이 땅과 온 세계에 백두산천출위인의 거룩한 모습이 찬연히 빛발치는 위대한 장군의 년대기, 최고사령관년대기로 솟아 올랐다.

새 세기의 첫해가 저물어 가는것과 함께 력사의 12월 24일을 열번째로 맞이한 이 땅우에 선군혁명의 기치인 최고사령관기가 펄펄 휘날리고 있다.

우리의 붉은기를 위하여 력사가 낳은 12월 24일, 최고사령관년대기가 시작되던 1991년의 그날에 다시 서보자. 페르샤만수역의 자그마한 주권국가를 벌둥지처럼 짓조겨 놓은 제국주의자들이 극도로 기고만장하여 우리 공화국을 향해 주린 이리떼마냥 으르렁거리던 때였다.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로골적인 배신과 포기의 목소리, 망조의 소음들이 울려 나오고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 ¡ì인민¡í의 탈을 쓴 반동들의 손에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것과 같은 참변이 일어 나던 끝에 사회주의대국의 하늘가에서 70여년간 날려 온 붉은기가 내리워 지던 날이였다.

바로 이날에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시였음을 알리는 보도가 세상에 울려 퍼졌다.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추대!

이것은 실로 의미심장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총대를 억세게 틀어 쥐고 조국의 존엄과 안녕,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 가리라는 조선의 가장 명백하고 힘있는 선언이였다.

이렇게 시작된 10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며 싸워 왔는가.

조국의 기슭에는 시련의 파도가 그칠새 없이 밀려 들었다.

제국주의호전세력들은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를 기화로 평양을 향해 미친듯이 전쟁을 짖어 대며 1993년의 핵위기를 몰아 왔다.

우리 장군님께서 최고사령관으로서 처음으로 치른 이 준엄한 핵대결전에서 원쑤들은 조선의 최고사령관의 본때를 단단히 맛보았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었다.

비렬하게도 놈들은 전쟁의 불뭉치대신 봉쇄의 그물을 펴들었고 그 다음은 질식의 올가미를 조이려 들었다.

제일 참혹하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은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잃은 피눈물언덕에서 시작된 ¡ì고난의 행군¡í이였다.

허나 우리의 대오앞에는 오늘의 붉은기인 최고사령관기가 높이 휘날리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비상한 삶과 투쟁에로 힘 있게 불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의지와 신념을 안은 그 기발의 펴덕임은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을 휘몰아 왔고 파멸에서 승리를, 고난에서 부흥을 낳은 위대한 선군시대를 장엄히 펼쳐 놓았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대를 틀어 잡으셨기에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와 붉은기가 수호된 10년이다. 류례 없는 시련의 광풍속에 선 인민은 처음에는 이전의 습관대로 공장길이나 농촌길에서만 자기의 령도자의 모습을 찾았다.

잊지 못할 다박솔초소를 내린 장군님의 걸음이 공장길도 농장길도 지나 철령을 넘고 파도를 헤가르며 최전연의 351고지와 1211고지, 오성산과 대덕산, 초도와 판문점을 찾으시는 그 깊디깊은 사연을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바로 그 길이 진짜로 붉은기를 지키고 조국과 인민을 지키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 선군혁명 천만리길이였다.

인민은 언제 한번 최고사령관복차림을 하신 장군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인민은 언제 한번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장군님의 연설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우리의 최고사령관은 집무실에서 내리는 지시로가 아니라 전선길을 종횡무진하는 사생결단의 강행군, 완강한 공격전으로 원쑤들을 답새겨 대고 조국앞에 날아 오는 보이지 않는 총포탄들을 막아 내시였다.

결사수호전으로 가렬처절하게 흘러간 10년, 이 나날에 대한 가슴 저리는 추억을 안고 전선취재길에 올랐던 우리는 한 군인가족녀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엄하던 그 세월 고난과 시련의 정적을 깨뜨리며 최전선을 향해 전속으로 달리던 장군님의 야전승용차소리, 처음에는 귀에 설던 그 소리가 불안과 동요를 가셔 주고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게 해주고 희망과 신심을 안겨 주며 자주 울리군 하여 이제는 너무도 귀에 익었다는 그의 이야기를 무심히 상기할수 없다.

그렇게 이어 지고 또 이어 진 이 나라의 무수한 전선길들은 력사에 무엇을 웨치고 있는것인가.

총포성 없는 의지의 전쟁에서 조국과 사회주의를 수호한 조선의 힘,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비범한 사상과 전법, 무한한 애국열과 희생으로 다져 진 위대한 선군력이였다는 그것이다.

10년의 세계를 둘러 보자.

내리워 진 붉은기와 함께 존엄과 행복이 사라 져 버린 땅, 거기에는 옛 시기의 계급분화가 재현되고 수천만 대중이 그릇된 삶의 진창속에 빠져 들었다.

걸핏하면 치욕의 공습을 당하는 저 아랍의 한 나라에서 폭격과 기아로 숨진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수가 150만 계선을 넘어 설 때 억울히 전쟁을 강요 당한 발칸반도의 주권국가수반이 제 나라의 존엄을 지켜 나섰던것이 죄가 되여 페허가 된 조국땅을 뒤에 두고 국제재판소의 피고석에 앉아야 했다.

이러한 시기에 괴멸의 심연속에서 불사신처럼 솟구쳐 올라 사상 최악의 시련을 돌파하고 붉은기의 영예로운 수호자로 새 세기에 들어 선 조선의 10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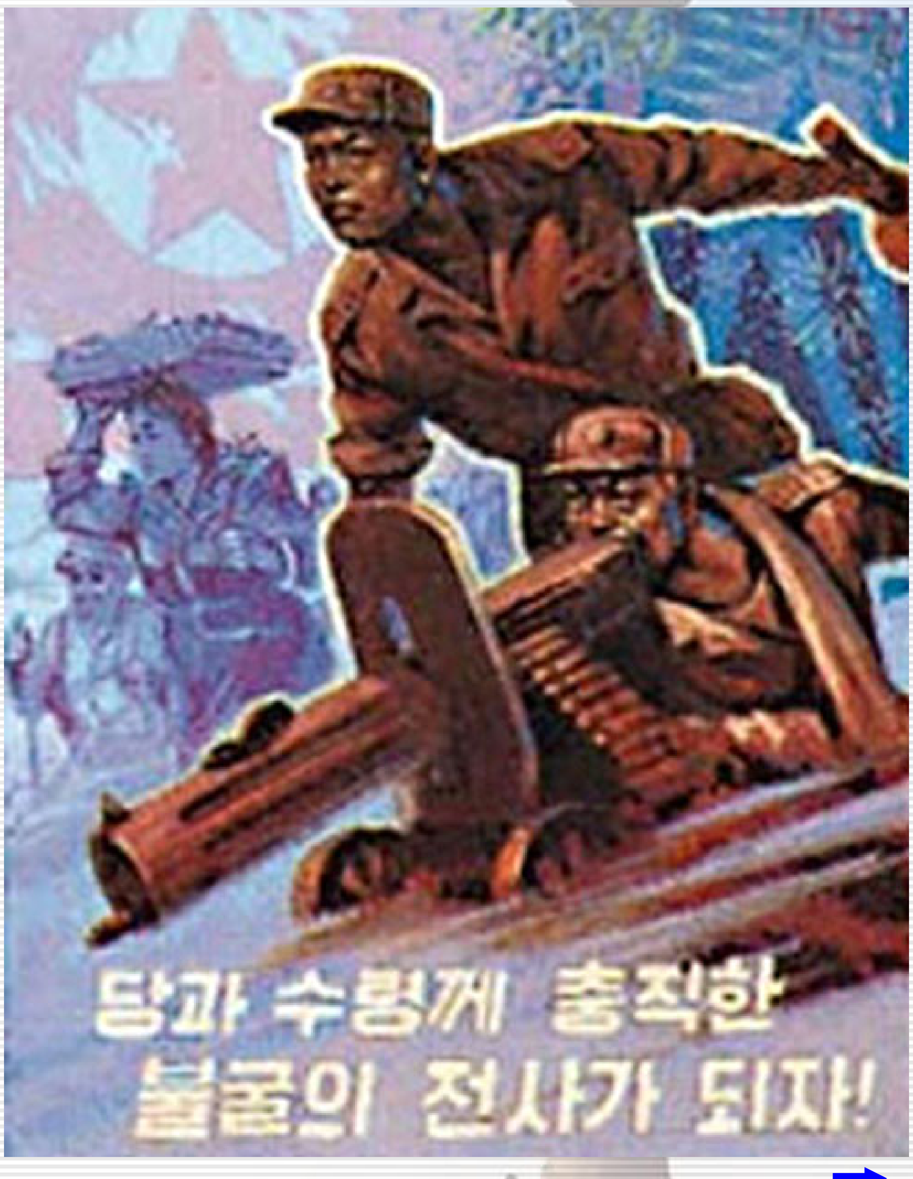
붉은기를 지켜 낸 당당한 자부심과 위풍으로 력사적인 첫 공식대외활동에 나서시여 새 세기 세계자주화의 포성을 울린 선군명장의 5만여리 장정의 의미가 숭엄하게 부각되고 있다.

인류전쟁사의 갈피를 뒤번져 보면 10년간의 전쟁기간에 800개의 성을 함락하고 300만의 군사들과 싸워 이긴 고대로마의 한 장군의 전과가 특기되여 있다. 하지만 그 수자가 아무리 요란한것이라고 해도 저물어 가는 제국의 운명을 돌려 세울수는 없었다.

시대의 한복판으로 선군혁명기관차를 기세차게 몰아 노예로 될번했던 인민, 지구상에서 영영 없어 질번 했던 민족과 사회주의를 구원하고 기울어 지는 20세기를 바로 잡았으며 새 세기의 려명을 우주만리에 휘뿌려 주신 **김정일**최고사령관의 10년공적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다.

이 땅에 백두산의 축복을 내린 12월 24일을 우리는 긍지높이 노래한다.

흘러 간 10년은 우리 민족의 혈통을



이어 준 행운의 10년으로 가슴뿌듯이 느껴 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다운 불굴의 의지와 담력, 뛰여 난 지략과 령군술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 혁명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백전백승의 담보가 있습니다.≫

피눈물의 1994년이 저물어 가던 어느 날 우리 장군님께서는 저으기 뜨거움에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수령님께서 12월 24일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자고 하신것은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것 같습니다.

12월 24일은 우리 어머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나는 수령님께서 12월 24일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여시고 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할줄은 몰랐습니다.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동지께서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것으로 하여 백두산장군가문의 혈통, 우리 민족의 혈통이 총대로 굳건히 이어 졌다.

로동계급의 혁명정권계승의 력사를 돌이켜 보자.

선대수령이 후계자에게 먼저 넘겨 주는것은 주로는 당과 국가의 수반직이였다.

천재적인 선견지명으로 멀리 앞을 내다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다른 그 어떤 관직에 앞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제일먼저 넘겨주시였다. 결국 장군님께서는 종전의 관례와는 달리 총대와 군직부터 먼저 넘겨 받으시였다.

총대로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이 땅에 기여 드는 침략의 무리들을 때려 눕히였으며 총대로 사회주의 새 세상을 탄생시키고 빛내여 온 우리 조국의 력사가 보여 주는것은 무엇인가.

혁명의 계승은 총대의 계승이며 혁명의 령도권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무력의 통솔권이라는것이다.

총대정신이 투철하지 못했거나 총대가 약한 탓에 비참한 파멸의 나락에 떨어 진 나라들의 운명이 보여 주는 교훈은 또 얼마나 심각한것인가.

바로 그래서 우리 수령님께서 력사와 시대, 인민의 념원을 담아 다름아닌 1991년, 그것도 12월 24일에 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도록 하신것이다.

총대로 조국과 민족의 혈통을 이어 가심은 어버이수령님의 선견지명, **김정일**어머님의 생전의 뜻, **김정일**장군님의 력사적사명이였다.

인민무력부혁명사적관에 가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력사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인상 깊은 장소가 있다.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사진들과 사적물들을 보면 우리의 장군님이시야말로 위대한 군인, 타고 난 최고사령관이시라는 탄복과 확신을 금치 못하게 된다.

력사에는 한 나라의 군대를 통솔한 최고사령관들이 많았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과 같이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 지략과 전법, 인덕과 의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겸비한 그런 최고사령관, 선군이라는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을 내놓으시고 구현하신 그런 최고사령관은 동서고금에 찾아 볼수 없다.

김정일장군이시자 총대이고 총대이자 **김정일**장군이시다.

총대사랑, 총대제일주의는 **김정일**위인상의 또 하나의 핵이기도 하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이고 날로 준엄해 지는 안팎의 정세가 최고사령관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일생일대의 선택을 촉구하던 1995년 설전야에 어느 한 사격장에서는 요란한 총성이 대기를 찢어발기며 울려 퍼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탄창된 자동보총과 기관총을 가슴 후련히 풀어 쏴갈기시는 소리였다.

력사의 갈림길에서 울린 그날의 총성은 위대한 장군님 내리신 선군혁명의 단호한 결단이였고 목표판을 순간에 날려보낸 거센 불줄기는 장군님께서 단숨에 그어 놓으신 승리의 선군혁명진격의 화살표였다.

나는 최고사령관으로서 사회주의도 지키고 주체혁명위업도 완성해 나갈것이다!

폭풍 사나운 ¡ì고난의 행군¡í길에 이 엄숙한 선언을 뢰성마냥 터뜨리시고 최고사령관의 기치,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군민을 이끌어 오신 희세의 선군명장 **김정일**동지,

최고사령관의 10년은 이 땅에서 세기만 이어 놓은것이 아니다.

백두산장군의 총대혈통을 민족의 혈통으로 이어 놓았고 이 세상 그 어느 인민도 누릴수 없는 최고사령관복을 이어 놓았다.

이것이 력사의 12월과 함께 우리의 가슴속에 더욱 뜨거이 파고 드는 지난 10년에 대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추억이다.

10년은 우리 민족의 앞길에 밝은 미래를 열어 준 광명의 10년이다.

진두에 높이 날리는 최고사령관기를 따라 선군의 격랑을 일으키며 기세차게 달음쳐 온 10년의 나날들을 보라.

그것은 지나간 력사의 총화로서나 오늘의 승리로서만 소중한것이 아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미래가 있어 그리도 위대한것이다.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본다는 말이 있다.

10년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광활한 미래가 비낀 위대한 거울이며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안아 올수 있는 크나큰 밑천이다.

우리는 ¡ì고난의 행군¡í의 동토대를 용감무쌍히 헤쳐 넘어 강성부흥의 봄을 꽃피워 냈으며 새 세기 창조와 혁신의 봉화인 라남의 봉화를 하늘 가득 피워 올렸다. 자기의 수령을 어떻게 결사옹위해야 하는가를 배웠고 고난과 시련은 어떻게 극복하며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 인간의 량심과 의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배웠다.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민족과 계급의 원쑤들과는 어떻게 무자비하게 싸워야 하며 자기의 혈육들과 인민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웠다.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정치를 필승의 기치로 추켜 들게 되고 항일의 혁명전통과 함께 **김정일**선군혁명전통을 만년재부로 가지게 된것은 최고사령관동지를 따라 온 10년이 우리에게 준 크나큰 자랑이며 힘이다.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 래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뜻 깊은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무서운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지난 기간의 투쟁속에서 선군을 한것이 얼마나 정당한것이였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력사상 그 어느 민족도 겪어 보지 못한 조국수호의 폭풍 천만리를 헤침으로써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 떨친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이다. 총대의 신념으로 다진 10년의 힘은 비할바없이 크다.

위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이긴다.

최고사령관과 군대, 최고사령관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우리에게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땅에 피 끓는 심장마다에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이 만장약된 군대, 백두령장의 손길아래 이 세상 그 어떤 적도 단매에 소멸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격수단, 방어수단을 다 갖추고 자기의 최고사령관의 명령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백두산군대가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세계가 테로와 ¡ì반테로¡í의 소용돌이속에 말려 들어 벅적 고아 대며 이리 놀라고 저리 뛰여도 백두산은 끄떡없다.

이 지구상에 인류의 정의를 수호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인 운명을 개척하실분은 오직 우리의 위대한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밖에 없다.

위대한 장군님은 붉은기를 높이 들고 정의의 위업을 실현해 나가실 강성조선의 최고사령관, 자주적인류의 최고사령관이시다.

최고사령관,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승리만을 기록해 온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깃들어 있고 끝없이 부강번영할 **김일성**민족의 휘황한 미래가 있다.

위대한 백두산3대장군의 총대혈통은 조선의 생명, 우리 민족의 영원한 피줄기이다.

우리는 최고사령관의 승리의 력사에서 대를 이어 누려 갈 장군복,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본다.

위대한 령장의 군대와 인민은 경축의 춤바다 펼쳐 지는 오늘의 이 뜻 깊은 최고사령관추대의 명절에 위대한 수령님과 백두산녀장군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감사와 경의를 드린다.

원수별 빛나는 백두산의 붉은기, 최고사령관기여, 부흥강국의 진군길우에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더욱 힘차게 휘날리라.

성스러운 백두산장군혈통을 대를 이어 받들어 가는 최고사령관의 조국, 위대한 **김정일**강성조선은 천만년 무궁번영할것이다.

(끝)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26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20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인민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은 식량난이였습니다. 경제 생활분야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도 바로 식량난에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여러해째 계속된 자연재해로 해서 농업생산이 커다란 지장을 받은데다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경제봉쇄로 해서 식량문제가 매우 긴장해지게 되였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농업생산을 빨리 추켜세워서 농업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줄 수 없었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경제전반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잘 해나갈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식량문제 해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보시고 농업생산을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으로, 전기문제와 함께 강성대국 건설의 돌파구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영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조직영도하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주체농법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주체농업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주체농법은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 그리고 매 포전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농사를 짓는 과학적인 농법이며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농법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종자를 시험포전에 심어보고 협동농장들에 일률적으로 심게 하는 현상을 없애고 주체농법의 중요한 요구인 적지적작, 적기적작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농사에서는 농민들의 의사와 요구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자기 고장의 지대적 특성과 기후풍토, 농작물의 비례관리와 생물학적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농민들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농사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다음으로 감자농사혁명 방침을 제시하시고 감자농사에서 일대전변을 안아오셨습니다. 산이 많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감자농사를 잘하는 것은 식량생산을 늘이고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감자농사를 논벼나 강냉이 농사에 비해 소홀히 대했고 감사를 알곡작물이 잘 되지 않는 산간지대에서나 재배하는 작물로만 여겨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사농사에 대한 이러한 종전의 관념을 혁신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감자농사를 잘하면 식량문제도 풀 수 있고 고기문제도 풀 수 있다고, 감자는 흰쌀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을 아시아의 감자왕국으로 만드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자농사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선, 량강도 대홍단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로 꾸려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주체87 1998년 10월과 주체88 1999년 8월, 또 주체89 2000년 3월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홍단군을 현지지도 하시고 감자종자 문제로부터 비례수감염방지 문제, 땅의 지력문제, 종합적 기계화와 노력문제에 이르기까지 감자농사를 잘 짓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대책들을 하나하나 요해하시고 즉석에서 해결해주셨습니다. 또한 대홍단군와 감자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감자연구소를 새로 내오게 하셨고 마력수가 높은 뜨라또르며 물구름과 농업을 뿌리는 기계, 대중화물대동차를 비롯한 현대적인 각종 농기계들을 수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자농사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한 대홍단군의 감자농사 경험을 전국에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차례의 강습과 방식산업을 조직해서 우량한 다수확 감자품종을 개발육종하고 재배방법과 재배기술을 혁신하며 물구름을 비롯한 유기질 거름을 생산하고 시비하는데서 대홍단군이 이룩한 감자농사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다음으로 두벌농사를 대대도록 짓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벌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선, 여러 시군들에서 두벌 농사를 진행하여 경험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황해남도 옹진지역에서 두벌농사 재배 시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두벌농사 재배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밀보리 파종기와 수확기를 보내주시였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벌농사 재배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따라 그 경험을 다른 지방들에 일반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벌농사와 관련한 기술강습을 조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벌농사를 철저히 알곡대 알곡의 식량 원칙에서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두벌농사에 대한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세심한 영도에 의해서 두벌농사가 힘있게 벌어져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습니다. 두벌농사 면적이 훨씬 늘어나고 특히, 북부 산간지대에서의 두벌농사, 세벌농사가 창조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에서는 두벌농사를 주로 청천강 이남지역에서만 짓는 것으로 되여왔습니다. 그러나 청천강 이북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두벌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확증되였습니다. 자강도 장강군 읍협동농장의 농사경험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이곳 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은 자강도에서도 능히 두벌농사를 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북부 산간지대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농장물의 생육기일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세벌농사를 하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주체88 1999년 6월 몸소 이곳 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부 산간지대에서 세벌농사를 한다는 것은 희한한 일이라고 자강땅에서 세벌농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하시면서 전국적인 방식산업을 조직하여 전국이 이 농장의 경험을 따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강도의 여러군들과 함께 함경남북도와 평안북도를 비롯한 청천강 이북지역의 많은 농장들에서 두벌농사가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다음으로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 농사를 잘 짓는 것과 함께 고기를 풍족하게 생산보장해서 인민들의 식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실 결심을 안으시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 나가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선,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최신과학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인 목장들과 가공기지들을 건설하도록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 우유와 같은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충분히 먹이시려는 일념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들여 현대적인 목장과 가공기지들을 전국도처에 새롭게 꾸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강농기소목장, 타조목장, 110여닭공장을 비롯한 최신과학기술로 장비된 목장들과 가공기지들이 전국 도처에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축산업발전을 위해서 또한 풀먹는 집짐승들을 많이 기르도록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염소와 토끼 기르기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풀판 조성사업을 잘하도록 하시는 한편, 일년에 젖을 한통씩 짤 수 있는 우량종 염소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새로운 토끼 종자도 구입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영도에 의해서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만도 전국적으로 37만 9천여 정도의 풀판이 조성되였고, 염소 마리수도 훨씬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다음으로 토지정리에서 혁명을 일으키시여 이땅에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펼치시였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공화국의 농촌들에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올망졸망한 뙈기논밭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토지정리를 알곡생산을 늘이고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더 잘 실현할 뿐아니라 봉건적 토지소유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사회주의 조선의 땅답게 그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고 토지정리를 적극 밀고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토지정리 사업이 제일 뒤떨어지고 작업조건이 매우 불리한 강원도에서 토지정리를 먼저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주체87 1998년 5월 어느날, 전선시찰의 길에서 창도군 대백리를 찾으신 장군님께서는 산골짜리 여러곳에 널러있는 다락논과 뙈기논을 가리키시면서 강원도의 토지정리를 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즉시 관계부문 일꾼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여 토지정리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습니다. 토지정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그 12월 어느날, 고산군 난정리에 토지정리 현장을 돌아보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토지정리를 소극적으로 하지말고 논배미 하나가 1천명, 8백평 정도 되게 기준을 정해놓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원도의 토지정리에 이어 평안북도의 토지정리 사업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주체88 1999년 7월과 주체89 2000년 1월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평안북도의 토지정리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 주시면서 토지정리가 적극 추진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안북도의 토지정리 사업이 끝난데 이어 황해남도의 토지정리 사업을 조직영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도의 토지정리는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끝낸 다음 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우리 공화국의 토지는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3만여정보의 토지가 정리되고 평안북도에서 5만정보의 토지가 정리되여 옛 모습이 완전히 일신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황해남도의 1단계 토지정리가 끝나고 2단계 토지정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새롭고 획기적인 성과들은 농업문제에서부터 강성대국 건설의 지름길을 열어 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에 이룩된 것입니다. 참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노고는 우리 공화국의 농업발전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이크 선 하나로 갈리운 남북

통일맞이. 삼천리철도, 경의선 타고 JSA가다

≪이 자리가 남과 북 회담대표들이 마주 앉았던 곳이고 이 마이크 선이 남과 북이 나뉘는 경계였습니다.≫

21일 통일맞이(이사장 이재정)와 삼천리철도(이사장 정상태)는 ≪통일맞이/삼천리철도 심포지움 및 휴전선 통일기행≫ 둘째날을 맞아 신촌역을 출발하여 판문점을 다녀오는 통일기행을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지금은 자유의 집으로 바뀐 남측 회담장소인 예전의 판문점을 둘러본 참가자들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이크 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나뉘었다는 사실을 좀체로 믿기 어려운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어제 오후 통일부장관실을 찾아 경의선 복구 성금 1차분을 전달한 바 있는 참가단은 이날 아침 9시 신촌역에 모여 기차편으로 경의선의 일부 구간인 임진강역까지 기차여행을 했다.

임진강역에 도착한 참가단은 한미합동군사훈련 대열과 마주치며 근처의 율곡 이이 선생이 지었다는 화석정에 들러 건너편에 마주보이는 미군 기지를 둘러보았다.

이날 통일기행 안내를 맡은 이시우 사진작가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던 율곡 이이의 화석정 건너편 미군기지에 토요일 오후면 오끼나와 주둔 미군들이 비자도 없이 헬리콥터로 여기로 날아와 서울에서 주말을 즐기고 일요일 오후에 다시 여기를 통해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며 미군의 치외법권적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조선말기 6개의 국도중의 제일이었다는 서울-신의주간의 1번국도를 타고 임진각에 도착한 참가단은 자유의 다리를 바라보면서 한국전쟁과 포로교환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다.

참가단은 다시 ≪분단의 끝, 통일의 시작≫이라 씌어진 도라전망대로 가서 국방분계성(MLD)과 북방한계선(NBL), 그리고 정전협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정전협정이 이미 사문화된 현실에 대해 이시우 작가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경의선도로 시작점을 지나 북한군과 유엔군의 공동경비구역(JSA)에 들어선 일행은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나란히 나부끼는 이곳에서 간단한 교육과 신분확인을 거친 뒤 비로소 판문점 견학에 나섰다.

특히 판문점 견학에 앞선 교육과정에서 유엔사 규정 551-5에 의해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방문자 서약서는 이 곳이 어떤 곳인지를 명백하게 일깨워 주었다.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방문자는 아래의 글을 읽고 서명해야 합니다. (중략)예측불허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유엔군 및 대한민국, 미국 측은 방문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만일 적의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언 : 적 도발에 의한 본인 및 동반자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옛 판문점을 둘러보고 자유의 집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판문각은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민군 병사가 경비를 서고 있는 모습이 뚜렷이 보이고 북측이 설치한 카메라들도 눈에 들어왔다.

판문점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제3초소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손에 잡힐 듯하고 북측 기정동 마을이 육안으로 직접 보이며 조금 내려오면 남측 대성동 마을의 거대한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이 보인다.

견학경호부 소속 한 안내 병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5-600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으며 한국인과 미국인 일본인이 각각 30% 정도를 점한다고 한다.

이곳을 처음방문한 일본인 이시자와 미에꼬(27, 여)씨는 재일동포인 남자친구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다며 ≪마치 가고 싶어도 오지 말라고 하는, 기쁜 마음을 못 받는 그런 장소 같다≫며 ≪다시 올 때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일기행을 마친 참가단은 오후 7시부터 로얄호텔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방한 3일째인 22일에는 철원 기행을 떠날 예정이다.

김치관기자
통일뉴스 2002/03/21

≪금강산 모꼬지가자≫, 전국 대학가로 확산

그동안 비싼 경비 때문에 주춤했던 대학생들의 금강산 관광이 활기를 띄고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21일 오전 금강산 관광 경비지원 방안을 확정, 대학생들은 본인부담 20만원이면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3월 초 개강이후 대학가에 본격적으로 불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연세대 · 경희대의 수학여행단 및 답사단 모집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최근에는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다.

연세대는 오는 4월 4일 10여개과 학생회 대표들 25명으로 구성된 수학여행 답사단이 금강산 관광을 떠나고 오는 5월초 3백여명 규모의 대규모 수학여행을 추진중이다.

연세대 수학여행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현진(동아리연합회장)양은 ≪현재 10여개 과 · 동아리에서 수학여행단 신청을 마친 상태이다≫며 ≪경비부담이라는 현실적 조건이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제약해 왔는데 정부지원으로 금강산 수학여행 사업이 크게 흥행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발표를 환영했다.

대학가의 금강산 관광사업은 연세대, 경희대에 이어 전국 대학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고 이미 대구경북지역, 부산경남지역, 경기남부지역에서는 지역차원의 대규모 수학여행단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헌 기자
유뉴스 2002/03/21

한나라 소장파, ≪이총재측근 퇴진≫ 촉구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21일 하순봉 부총재를 비롯한 이회창 총재 측근인사들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 한나라당 내분이 인적 청산 요구로 비화하고 있다.

소장파 모임인 ≪미래연대≫ 소속 원내외 지구당위원장 23명은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당을 위기로 몰고 간 일부 측근들이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할 것을 요구한다≫며 ≪당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행위에 맞서 단호한 구당 쇄신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래연대 대표인 오세훈의원은 ≪(이 총재가 지도체제 개편을 거부한 것은) 일부 측근의 작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고, 김영춘의원은 ≪곧 쇄신운동 확산을 위한 당내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미래연대 소속의 한 의원은 ≪민정계 출신 당직자들이 이회창총재 주변에 포진해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선승리를 위해선 하순봉 · 양정규 부총재와 김기배 전 사무총장 등 민정계 출신 고위당직자들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주류에 속하는 한 중진의원쪽 인사도 ≪현재 당의 본질적 문제는 군사주의 문화를 잇는 수구세력이 이 총재의 주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들이 이 총재를 떠받들면서 한편으론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배가 흔들리면 쓸데없는 쥐새끼들이 왔다갔다 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하순봉부총재는 ≪내 진의가 잘못 전달됐으며, 당원 동지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사퇴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찬수기자
한겨레신문 2002/03/21

부산시민단체 후보자 공개운동 전개

2000년 4.13총선에서 낙천. 낙선운동을 벌였던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부적격자를 낙선시키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삼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는 29일 부산YMCA 등 부산지역 5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명선거, 정치개혁, 부산유권자연대≫(이하 부산유권자연대) 발족식을 갖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시민이 요구하는 공약을 내걸도록하는 ≪유권자 요구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부산유권자연대는 ▲유권자운동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공약정책위원회 ▲선거감시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선거참여를 유도하고 각 후보들의 경력과 발언, 재산, 정책과제 등의 정보를 입수해 공개하는 후보자공개운동을 통해 검증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지역언론사와 연계한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공약 및 정책 채택운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노승조기획부장은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자격미달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에 의해 낙선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정호기자
연합뉴스 2002/03/21

대학가 등록금투쟁 각양각색

경희대 총학생회 개강을 맞은 대학가가 교육재정 확보에 여념이 없다

20일(수)부터 경북대, 순천대, 경상대, 연세대, 서울산업대가 첫 등록금투쟁을 시작하는 등 대학가가 떠들썩하다. 지난해는 등록금 대신 현물을 납부하는 방식의 이색시위가 화제였다면, 올해는 몇천명이 모인 ≪학생총회≫성사가 돋보인다. 학생총회는 대학의 학생회칙상 최고의결기구지만 최근 몇년간 ≪학생총회성사≫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다.

4천 여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성사한 경북대가 화제로 떠오르는가 하면 학생들의 등록금을 사용했다는 죄목으로 대학본부에 가압류 딱지를 붙인 경희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 돼지들이 등장한 현물납부투쟁을 벌인 경상대 등의 이색시위가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뉴스에서는 대학가 등록금투쟁등 교육재정확보투쟁의 백태를 담았다.

경북대-11년만에 4천여명 참석해 학생총회성사, 총장 두차례 중재안 제안

경북대는 6백 여명이 모여 진행된 등록금투쟁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앙운영위 10일 단식, 73개 과학생회장 동조단식을 거쳐 지난 20일 11년 만에 4천1백15명이 참석하는 학생총회를 성사했다.

학생총회 성사 후 대학본부 측은 두 차례 중재안을 들고 나왔으나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아 부결됐다. 총장이 직접 나와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벌이기도 하는 등 학생총회가 새벽 2시까지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자리를 지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경희대- ≪안되겠다 데모 좀 해야쓰것다≫

대학본관 가압류에 들어간 경희대는 ▶부당한 등록금 인상 저지 ▶이월 적립금 환수 ▶재단 전입금 확충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안되겠다. 데모 좀 해야쓰것다≫결의대회를 19일(화)진행, 5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학교측을 상대로 가압류투쟁을 벌였다. 20일(수) 전학대회에 이어 오는 29일(금) 학생총회를 열 계획이다.

순천대-학생총회성사, 총학생회장 총장실에서 동고동락투쟁

학교측의 17%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동결≫을 주장한 순천대는 지난 20일 1천 200여명(재적 수 8천 여명)이 참석해 학생총회를 성사시켰다. "2002년 사업보고를 중앙운영위 앞에서 하겠다"는 학교측의 중재안을 얻어냈으나 26일(화) 동맹휴업을 진행하는 등 동결될 때까지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총학생회장은 학생들과의 면담에 소극적인 총장과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총장실에 거주하며 일일 업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산업대-대학본부 장례식, 22일 3일장 진행

≪근조 서울산업대≫. 서울산업대 정문에 붙여진 플랭카드다.

서울산업대는 교육재정확보투쟁의 일환으로 대학본부 장례식을 준비중이다. 20일(수) 빈소마련을 시작으로 22일(금) 발인을 하는 3일장을 진행한다. 발인날 살풀이, 대동굿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교육재정확보의 필요성을 공유할 예정. 서울산업대 총학생회측은 13%의 학교측의 인상안에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경상대-학부모 · 지역시민단체 공동투쟁, 현물납부

작년에 이어 현물납부투쟁에 들어간 경상대 캠퍼스는 소, 돼지 등의 가축과 쌀가마니로 가득찼다.

등록금 6%인상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지역 20여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소, 돼지, 개, 쌀, 호박, 농기계등의 현물을 대학본부 앞에 쌓아놓았다. 이에 대학본부 측은 재협상을 요구했으며 경상대총학생회측은 합의 사항이 지켜질 때까지 본부 가압류, 총궐기투쟁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100여명 총장실 기습점거 농성돌입

연세대도 20일 ≪등록금 인상률 조정≫과 ≪광역학부제 재 논의≫를 주장하며 100여명의 학생이 대학본부 2층 총장실을 기습 점거한 뒤 농성에 돌입했다.

재단전입금과 교육재정을 확충해 등록금 부담을 줄일 것과 획일적인 상대평가와 경쟁논리로 학생들 사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광역학부제에 대해 재 논의를 해야한다≫고 학교측에 요구했다.

백영순 기자
유뉴스 2002/03/21

공무원노조 출범강행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 16일에 이어 오는 24일 두번째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6급이하 공무원들의 단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23일 오후 7시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출범 전야제를 연 뒤 24일 오전 창립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을 갖고 본격활동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전공련은 24일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지금까지 전공련을 이끌어온 차봉천 위원장과 경남공무원직장협의회장인 김영길씨의 경선을 통해 초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 출범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타파 등 공직내부개혁에 주력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부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직접협상을 요구하는 등 완전한 노동 3권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공무원들의 노조결성 움직임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위≫라며 ≪공권력을 투입해 행사장을 원천봉쇄하고 주동자들을 징계,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호기자
연합뉴스 2002/03/21

발전노조위원장, 삭발투쟁 돌입

발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있단 강경방침에 맞서 발전노조 지도부가 삭발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는 ≪25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해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이호동 위원장을 포함한 발전노조 중앙지도부 5명은 20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머리를 삭발하고 파업 사수의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날부터 중앙쟁대위 40명이 정부와 회사에 대화재개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단식농성 돌입 성명서를 통해 ≪파업 이후 회사와 정부가 원만하고 평화적인 해결은 등한시 한 채 오로지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과 공권력을 동원한 무력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가 매국적인 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한 독선을 버리지 않으므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지난 18일 여야의원 26명이 서명한 ≪권고안≫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산개투쟁 중인 전조합원들에게 산개 투쟁 범위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지침을 20일 내렸으며 조합원들이 수도권으로 모이는 대로 곧바로 산발적인 대국민 선전전을 수도권 전역에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노조의 강경자세와 조합원 선전전은 19일 김대중 대통령이 ≪발전노조 파업은 불법이며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라≫는 요지의 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노조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항복하지 않겠다는 노조 지도부의 의지를 보이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통해 정부와 회사의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개 발전회사 사장단은 20일 산업자원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일 오전 9시까지 복귀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해 예외없이 해임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김재홍기자
매일노동뉴스 2002/03/21

김현희 KAL기 사건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김현희 KAL기 사건의 모든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오늘 오전 ≪김현희 KAL기 사건 희생자가족 진상규명대책위≫,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준)≫ 주최로 서울지방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기록, 재판기록 행정정보

박창일 신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 ≪현재 김현희 KAL기 사건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당시 언론보도와 안기부 발표뿐≫이라면서, ≪그러나 그 안기부 발표란 것이 최근 밝혀진 홍콩 여간첩 수지 김 사건, 최종길 교수 타살과 장준하 선생 암살사건 등 여러 전례를 돌이켜 볼 때, 조작의 가능성이 높고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창일 신부는 ≪김현희 KAL기 사건 희생자 가족들과 관련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의 답변만을 가다릴 수 없어 직접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변의 김형태 변호사는 ≪김현희가 무죄인 또 하나의 이유≫ 설명에서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와 판결문 비교를 통해 드러난 대한항공 858기 실종사건의 의혹을 몇 가지 제기했다.

즉 김형태 변호사는 ▲김현희가 1972년 11월 2일 평양에 도착한 장기영 대표에게 꽃다발을 주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설시하지 않은 점 ▲김현희가 깨물었다는 독약 앰플이 형상이 유지된 온전한 형태의 증거물로 제출된 점 ▲김현희가 빈에 도착한 곳이 바뀐 점 ▲김현희가 수여받았다는 상훈의 이름과 수여 시기가 달라진 점 ▲김현희가 빈에서 묵었다는 암파클링 호텔의 객실 호수가 누락된 점 등을 제기했다.

또한 민변의 심재환 변호사는 ≪졸속수사로 발표된 안기부 발표와 그 허구성≫ 발표에서, 안기부 발표와 김현희의 수기가 엇갈린 곳이 80군데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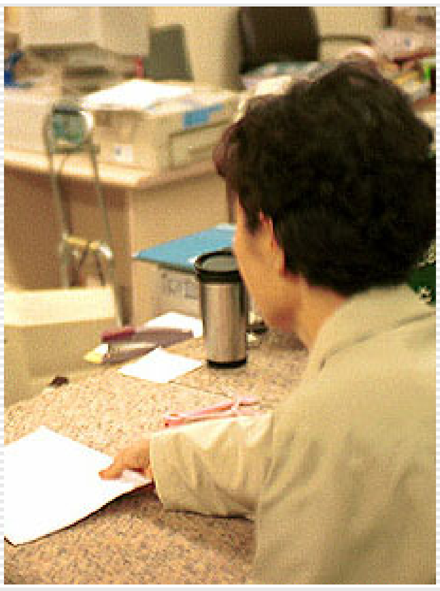
심재환 변호사는 특히 한국정부의 수사발표문과 김현희의 자백내용에 대해 일본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들이 현장취재를 통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이후 김현희는 자신의 수기에서 일본 프리랜서들에 의해 확인된 내용을 슬그머니 반영시켰다면서, 이는 한국정부와 김현희 자신이 진술한 바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김현희를 직접 만났는가≫라는 질문에 남상덕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김현희는 김영삼 정부때까지 공개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공개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모처에 의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명절때도 시댁에 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남상덕 사무국장은 김현희 KAL기 사건은 무엇보다도 98년 10월 국가정보원에 의해 ≪북풍의혹≫ 사건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재수사 사건으로 발표된 바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준)≫는 김현희 KAL기 사건 관련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서울지방검찰청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계환 기자
통일뉴스 2002/03/21



부평,미군부대 이전 찬반조사

미군부대이전과 관련해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의견조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 부평주민을 상대로 실시된다. 부평구의회(의장 이찬구)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로 상정한 <부평구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주민 의견조사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부평미군부대이전에 관한 주민 의견조사 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15~30일 동안 우편을 통해 부평구에 주소를 둔 만 20살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부평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찬반과 향후 활동방안에 관한 의견조사를 벌인다.

김영환기자
한겨레 2001/03/21

한총련, 美製 불매 운동 동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21일 최근 네티즌들 일부가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제 불매운동은 단순한 국수주의의 발로가 아니다≫며 ≪불매운동은 미 상품을 이 땅에서 근절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강권에 대한 주권 국가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또 22일 오후 1시 주한 미 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제불매 운동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충원기자
연합뉴스 2002/03/21

공무원노조 출범 지지선언 불붙었다

오는 24일 공무원 노조 출범을 앞두고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8일 경남지역 ≪1000인 선언'에 이어 창녕 김해 함양 의령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지 선언을 했으며, 마산과 창원지역 단체들도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 지지 선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기갑 김용택 백남해 손석형 임남훈 하해룡 김영길 이경숙)는 지난 18일 도청 정문에서 ≪1000인 선언'을 통해 ≪24일 전국 공무원 노조 출범 지지와 환영≫ 입장을 밝혔고, 공무원 노조 합법화를 촉구했다.

경상대 이창호 교수는 선언문 낭독을 통해 ≪우리 경남지역공동대책위는 그 동안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며 오늘에 선 경상남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적극 지지 ·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교수는 ≪노동운동과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경남공대위 결성에 이어 각 시군 지역에서도 공동대책위 결성이 잇따르고 있다.

≪의령지역사회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가 그 테이프를 끊었다. 의령공대위는 지난 18일 의령읍 현대예식장에서 공무원 노조 출범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령공대위는 성명서에서 ≪공직사회 민주화는 사회민주화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공무원 노조 출범에 따른 방해공작이나 관련 공무원의 의법처리 등 부당행위가 있을 때는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진주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도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21일 진주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이날에는 ≪공직사회 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진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도 결성되었다.

진주공대위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만과 우리나라만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가입국이자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나라로서 국제적인 망신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진주공대위는 ≪공무원이 바로서야만이 부정과 부패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위정자들은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서만 공무원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사회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주공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진주시공직협 하한조 회장은 ≪현재 정부 방침이 노조 대의원 참가자와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공무원 노조 출범을 원천봉쇄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진주의 경우 전체 대상 1372명 가운데 1065명이 노조 가입 원서를 낼 정도로 높은 참여를 보이고 있어 정부도 공무원 사회의 흐름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효기자
오마이뉴스 2002/03/21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2 (1)

≪남조선혁명가들은 혁명력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 세우며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당을 세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의 줄기찬 투쟁의 결과로 그리고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필연적 요구를 반영하여 1955년 12월 남조선혁명가들의 합법적 정당으로서 진보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보당은 반제, 반파쑈, 평화통일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투쟁강령을 내놓고 각계각층의 애국적 민주주의력량을 묶어세우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정책과 파쑈화정책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습니다. 남조선의 평범한 인민들 속에서 진보당의 위신은 높아졌으며 특히 이 당이 내놓은 평화통일강령은 남조선사회에서 커다란 지지를 받게 되였습니다.

1956년에 있은 괴뢰대통령 선거 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폭압과 사기와 협잡 속에서도 진보당이 내세운 ≪후보자≫가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 리승만이 얻은 투표수보다 약간 적은 수인 200만 표 이상의 찬성투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와 민족분렬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절실히 념원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진보당의 영향력이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빨리 확대강화되는 데 겁을 집어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류혈적인 탄압책동을 벌려 수많은 진보당 당원들을 체포 투옥하고 그 당수 조봉암선생을 학살하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당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하여 1958년 1월에 진보당은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습니다. 비록 진보당이 원쑤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대중적 혁명운동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자체의 혁명력량을 보존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나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의 기운을 더욱 높이고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진보당이 해산된 후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들에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탄압책동은 더욱더 강화되였습니다. 그러나 온갖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계속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혁명력량은 끊임없이 자라났습니다.

. . .

4월 인민봉기에 뒤이어 남조선 애국자들과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은 날로 강화되고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대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대중당이 나오게 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의 지도 밑에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로선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통일 국가의 창건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대중적 진출을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구국운동에로 이끄는 활발한 조직정치활동을 벌렸습니다. 이 당은 광범한 민주주의력량의 통일전선적 련합체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묶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 각층 인민들의 공동투쟁을 조직지도하였습니다. 사회대중당의 지도 밑에 투쟁의 불길은 남조선 온 지역에 세차게 타번지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통일만이 살길이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들고 남북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사회대중당은 청년학생들의 혁명적 진출을 미제의 남조선 강점을 끝장내며 그 식민지통치기구를 때려 부시고 민주주의적 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이 투쟁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회대중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반동 군사 깡패들을 내세워 반혁명적인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혁명력량에 대한 파쑈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나섰을 때 그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지 못하였으며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결국 탄압당하고 말았습니다.

5.16≪군사정변≫이 있은 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에서 로골적인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짓밟고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으며 언론, 출판 기관들을 폐쇄하고 수십만의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원쑤들의 이와 같은 야수적 폭압으로 말미암아 사회대중당은 파괴당하고 남조선의 혁명력량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후 이러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되였으며 많은 귀중한 교훈과 가치있는 투쟁 경험을 쌓았습니다. 남조선 혁명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평화적 이행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순수 대중운동만으로

광고

PDF자료집

반조선일보

조선일보해부
조선일보 그 행적을 알아본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민족사에 끼친 죄악
조선일보의 국가안보상업주의 곡필과 오보 10선
조선일보 인권,노동,사회 관련 왜곡 편파보도 사례

글
수구언론 청산돼야
노동자 모욕하는 조선일보 박살내자
겸허한 반성만이 조선일보 명예를 지키는 일
조선일보를 미국법정에서 심판하겠다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목소리
대학생 설문조사 –조선일보 평생구독거부동참 36.4%

성명

반조선일보투쟁

군중운동으로 확산

1년, 풍성한 결실속에 전진 결의
영화인도 ≪안티조선 ≫동참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권력집단의 곡필과 만행을 규탄하며
조선일보회개촉구 노상기도회,≪신문개혁기독교연대 ≫발족
백양로에 수놓아진 노란깃발 ≪안티조선 ≫
지식인 720명,조선일보거부 4차선언 발표
≪조선일보거부운동을 계속 된 ≫및 거부자명단
전국대학생 조선일보반대모임 공식 출범
전국대학생 조선일보반대모임 출범선언서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투쟁으로 분쇄하자(주체 89년 12월 8일)
조선일보는 이회창패당의 기관지(주체 90년 8월 25일)

는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미제의 비호 밑에 남조선의 력대 반동통치배들은,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적 인사들이 정권에 들어앉을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대중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매번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진보당도 바로 조국통일의 구호 밑에 선거에서 인기를 끌게 되자 곧 파괴당하였으며 사회대중당 역시 광범한 대중을 조국통일을 위한 구국투쟁에로 이끌고 인민들 속에서 신망이 높아지자 강제로 해산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혁명적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테로를 감행하는 것은 원쑤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놈들은 해방직후에도 려운형선생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단 한 가지 리유로 암살하였으며 김구선생 역시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련석회의에 참가한 뒤 진보적으로 나가게 되자 암살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남조선의 반동통치배들이 자기의 지배권을 공손히 양보하려 하지 않으며 진보적 력량을 압살하기 위하여 반혁명적 폭력에 필사적으로 매어달리고 있는 조건에서 오직 혁명적인 투쟁방법으로써만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벌리는 것과 함께 적들의 반혁명적 폭력에 혁명적 폭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였습니다.

특히 4.19인민봉기와 그 후의 사태발전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 엎기 위한 결정적인 혁명투쟁을 통해서만 인민들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쟁은 오직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 밑에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동원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피의 대가로 얻은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옳게 살리면서 군사파쑈통치배들의 악독한 폭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남조선혁명운동의 본질적 약점을 극복하고 혁명을 성과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관건적 고리를 로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에서 찾았으며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면서 통일혁명당건설을 다그치였습니다.≫(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김일성**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총비서 1970 11)

≪남호두회의는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체의 창립에 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나라 통일전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되었다.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도 제국주의의 침략을 저지시키기 위한 인민전선운동이 대두하여 파시즘과 대결하고 있을 때였다.

독일 나치스의 정권탈취에서 커다란 자극을 받은 프랑스 노동계급은 자기 나라에서도 파시즘의 위협이 증대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반파쑈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대중이 강렬한 통일열망에 따라 사회당은 1934년 7월 공산당의 제기를 받아들여 반전, 반파쑈통일행동협정을 체결하였다. 두 당의 영향 밑에 분리되어 있던 노동조합도 통합되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노동과 자유와 평화의 인민전선≫이 결성되었다. 추세는 이 전선을 중산계급들과의 통일에로까지 확대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1935년 6월말 사회당, 공산당의 연합에 소부르주아정당인 급진사회당이 가담함으로써 이른바 ≪인민집합≫이 이룩되었다. 7월 14일 파리에서는 수십만 명의 참가하에 인민전선의 대시위가 진행되게 되었다. 3당 수뇌자들인 모리스 토레즈와 레온 블륨, 달라지예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시위행진의 선두에 섰다. 1936년 1월에는 3당을 중심으로 반전, 반파쑈 투쟁에 떨쳐나선 진보적 그룹의 통일에 기초한 인민전선강령이 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그해 4~5월에 진행된 하원총선거에서 인민전선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결과 사로내각은 총사직하고 레온 블륨을 수반을 하는 인민전선내각이 탄생하였다. 물론 인민전선정부는 대중의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에스파냐인민전선정부를 지지하면서도 이른바 불간섭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은 인민전선도 붕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에서의 노골적인 파쑈정권의 수립을 저지시켰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파쑈투쟁에서 하나의 유익한 경험으로 되었다.

국제공산당은 프랑스에서의 인민전선운동의 발전을 좋은 시사를 받고 전세계공산주의자들 앞에 인민전선결성을 중요한 투쟁목표로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자본주의의 즉시 타도를 목적한 세계혁명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전쟁과 파쑈를 반대하는 운동을 당면한 과제로 내세웠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의 하나의 노선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제2국제당계열의 여러 정당들은 국제당의 통일전선 제의를 거부하였으나 프랑스, 에스파냐,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인민전선운동은 현저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 . .

국제당은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재빨리 포착하고 각국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을 반전, 반파쑈 투쟁에로 묶어 세워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파쑈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것을 당면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함으로써 세계혁명의 영도기관으로서의 명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반파쑈인민전선운동과 관련한 국제당과 역사적 공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조국광복회, ≪세기와 더불어≫ 4권)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4호)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민족대단결과 그 구심점 (7)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혁명투쟁에서 령도자들이 지니게 되는 권위란 광범한 대중이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르게 하는 특별한 사회정치적, 정신도덕적 영향력이라 할 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지니신 권위는 이렇듯 오늘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진보적 인류가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야 할 정치적 수령으로 숭앙하는데서 형성된 국제적 권위이기도 한 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비서께서 지니신 권위는 오늘의 시대가 제기하는 초미의 문제들에 화답하여 이룩하신 령도업적에 바탕하여 형성된 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지니신 권위와 같이 그 누구도 지닐 수 없는 최상의 높이에 도달한 권위이고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절대적이고 공고한 권위이며 그 어떤 힘도 초월하는 감화력을 지닌 권위인 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비서는 바로 이러한 특출한 권위를 지니신 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함께 민족대단결의 중심이 되시는 것이다.

무릇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성패가 령도자의 령도력에 따르고 한 민족의 위대성이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경제력의 발전수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따른다 할 때 인류사상 그 누구도 지녀본 적이 없는 최상의 권위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비서를 민족의 태양으로, 령수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대통운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족은 일찍이 조국광복의 서광이 밝아온 그날에 벌써 이러한 민족의 대통운은 온 세상에 예고하였다.

항일혁명투쟁사를 반영하고 있는 구호문헌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민족의 ≪최고령도≫, ≪민족의 태양≫, ≪독립조선 대통령≫, ≪만백성의 하늘님≫, ≪조선의 하늘님≫등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비서의 탄생에 즈음하여 그 분을 ≪백두광명성≫, ≪백두성≫, ≪독립백두성≫, ≪백두산태양성≫으로 칭송하면서 **김일성**장군님과 그 분의 대를 이을 **김정일**백두광명성을 모신 것은 민족사상 최대의 대통운이라 하였다.

무릇 대통운이란 운이 크게 트였다는 뜻으로서 항일혁명선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이 계시여 조선의 독립과 민족의 새 생활이 개척되었는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김일성**장군님의 자질과 품격을 고스란히 물려받으며 대성하시여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시는 것을 반만년 민족사가 받아안은 최대의 행운으로 여기는 것이다.

백두밀림에 아로새겨인 항일선렬들의 념원은 그대로 현실화되여 현대력사에 가장 걸출한 두 분의 령도자를 모신 조선민족의 영광과 행운으로 세계에 메아리치고 있다.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향도따라 나아갈 때 승리와 영광만이 있음을 실증해준다. 그 분들의 두리에 한마음으로 굳게 뭉치면 민족의 힘이 백배천배로 강성해져 어떠한 제국주의 강적도 쳐물리칠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자주의 한길로 꿋꿋이 매진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강자로 존재하여 조선민족제일의 존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걸출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 것으로 하여 우여곡절을 겪어온 민족사의 교훈으로 보나 우리 민족성원들의 의사와 요구를 놓고 보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만이 통일의 구성이시라는 민족사적좌표에 계신다.

조국통일은 곧 전민족의 화합이고 대단결이며 민족의 대단결은 구심점에의 사상의지적, 조직적 결속이다. 우리 민족은 통일의 구성이고 민족대단결의 중심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비서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미 그 총적목표와 시간표가 그어진 90년대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것이다. (끝)